

제2332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스타벅스 '송호섭' 1년 순항 중 15



글로벌 기업 구내식당 '메뉴의 품격' 9

코스피(21일 전주 대비) 2162.84 (-60.75P)
코스닥 667.99 (-20.92P)
환율(달러당 원화) 1209.20 (+26.2원)
금리(국고채 3년물) 1.182% (-0.148%p)

<위기경보 최고 단계>

'코로나' 확진자 600명 넘어...정부 '심각' 격상

文대통령 "앞으로 며칠이 고비" 초·중·고교 개학 1주일 연기 추가 하락세에 원화까지도 '뚝' 28일 소비 진작 특단 대책 발표

정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초·중·고교 개학도 일주일 연기된다.

▶관련기사 2·3·4·6·8·15·16·18·19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전문가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며칠이 고비다.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해 조기 치료하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 지역주민이 혼연일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 단계는 유입된 전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상황을 뜻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의 집단감염이 확인된 19일(51명)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는 603명으로 전날보다 170명이 늘었다. 신규 확진자 170명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95명이며 이 중 75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12명, 서울 1명, 경기 4명, 부산 7명, 광주 2명, 경남 7명, 대전 24명, 광주 1명이 확진됐다. 사망자 수는 5명으로 전날보다 3명이 늘었다.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국무총리 주도의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돼 종전보다 방역대응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 격상의 배경이 됐다. 이달 21일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작년 말보다 4.6%나 하락했다. 달러당 원화가 1156.4원에서 1209.2원으로 오른 것이다. 원화 가치 낙폭은 경제 규모가 큰 신흥시장 10개국 중 3번째로 컸다.

불안감은 주식시장에서도 드러났다. 20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간 각국 증시 등락률을 분석(블룸버그)한 결과 코스피(-2.45%) 등락률 순위는 G20 증시 중 13위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킬 특단의 대책을 28일 내놓는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예산안(추경안) 편성도 점쳐진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쏟아진 휴일 도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23일 정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높였다. 대한감염학회·한국역학회 등 의학단체는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견해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듯 주말인 이날 서울 세종대로가 쓸쓸하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코로나 민심' 총선 판세 바꿀까

스페셜 리포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5면
현시점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느 당이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원내 1당이 될 것인가'다.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만큼 예상하기가 더욱 어렵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눈에 띄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했을 때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준연동형 비례제' 첫 적용 변수 19·20대 여론조사 결과 뒤집혀 "유권자 상당수 막판까지 고심"

실제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50여 일 전인 2월 16~18일 사흘 동안 실시해 19일 공개한 2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은 그 절반인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 결과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 1당이 됐고,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쳤다. 2012년 19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2월 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이 28%, 새누리

당이 26%의 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과반을 넘겼고, 민주당합당은 127석을 얻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 역시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갤럽은 "유권자들은 평소 지지하는 정당에 반드시 투표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 또는 견제, 동정 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할 정당과 후보를 정한다"며 "선거 당일까지 정당 지지도와 투표 의향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모두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점을 인지, 각오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변수를 줄이는 '굳히기 전략'을 택했다. 반면 통합당은 '정권심판론'을 띄우며 구도를 흔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푸조 수입사' 한불엠엔에스 세무조사

국세청, 4개월간 고강도 조사

국세청이 최근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시트로엥'을 국내에 공식 수입·판매하는 한불엠엔에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23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70~80명을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한불엠엔에

스 본사와 경기 화성에 있는 선에이로지스틱스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압수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한불엠엔에스와 선에이로지스틱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규모 조사인력을 동원하고, 약 4개월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내일의 솔루션은 기술에 있습니다.

77억명 모두 고갈 걱정없는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인체에도 환경에도 무해한 친환경 화학 기술을 더하고 미래 첨단소재의 기술까지 더한다면 내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더 많은 솔루션들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기술로 시대의 문제를 풀어낼 한화솔루션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

유입 차단 → 피해 최소화... 조기진단으로 ‘치료 총력’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격상... 대응체계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건 다른 의미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공식화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된 감염병 위기경보는 감염병 유입·전파 상황에 따라 한 단계씩 오른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되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장(국무총리)이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방역’ 중심의 대응체계가 ‘수습’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다. 앞서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2일 브리핑에서 “2009년 신종플루의 심각 단계에서는 검역을 일상적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별적인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중단하는 조치가 실시

감염원 특정·경로 추적 불가능 방역 중심서 수습으로 전략 전환

컨트롤타워 ‘중수본 → 중대본’ 총리가 본부장 맡아 총괄 지휘

됐다”며 “그 인력과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으로 바뀐다. 기존에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해 감염원을 특정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적정치료를 제공하고 사망 등 추가 피해를 줄이는데 집중하게 된다. 매일 100~200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모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추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할 경우에는 봉쇄 정책보다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맞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행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완화 정책의 주목적은 중증환자나 사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런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전달 체계를 빨리 정립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행사 등 참석을 자제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의료학회로 구성된 법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대정부·대국민 권고안’에서 “평소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열, 기침이나 목 아픔, 코막힘이나 콧물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 감기약을 복용하면서 4~5일 경과를 관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고군분투’ 23일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중앙119구조본부의 119 구급대 앰블런스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해 확진자가 있는 대구 시내 각 지역에서 출동하고 있다. 중앙119구조본부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늘어남에 따라 전날부터 전국 시도에서 18대의 앰블런스를 차출해 환자 이송에 나서고 있다. 대구 시내 확진자들은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과 서구 평리동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된다. 연합뉴스

여행경보 상향·입국 거부... 전세계 ‘코리아포비아’ 확산

美 국무부, 여행경보 2단계로 베트남, 방문 자제 권고 내려 이스라엘, 입국금지했다 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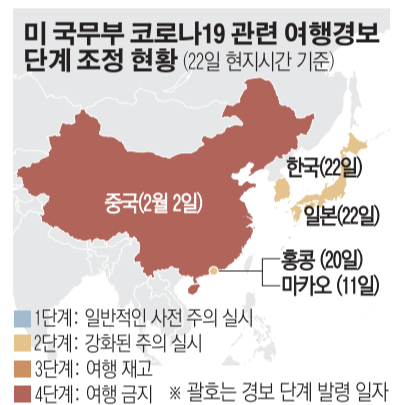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 경계령’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로 격상하는가 하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한국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 보고됐다”며,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travel advisory)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확산’이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또는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려지지 않은 채 확산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경보는 총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한국에 내려진 2단계 경보는 ‘강화된 주의 실시’를 의미한다. 이 밖에 1단계는 ‘일반적인 사전 주의 실시’, 3·4단계는 각각 ‘여행 재고’, ‘여행 금지’에 해당한다. 현재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에는 2일 자로 4단계인 여행 금지가 발령된 상태다.

CDC 역시 이날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travel health notice)를 ‘경계(alert)’ 수준인 2단계로 조정했다. 이제까지 한국은 ‘지역사회 확산국’으로 분류돼 왔는데, 이번에 1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로 분류됐다. CDC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국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19 호흡기 질환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전파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경보와 관련된 CDC 공지는 주의 단계인 1단계, 경계 단계인 2단계, 경고 단계인 3단계로 나뉜다. 이와 별개로 ‘여타 명백한 지역사회 확산 지역’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대만 역시 미국에 이어



이날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2단계 ‘경계지역’으로 격상했다. 이는 앞서 20일 한국을 1단계 주의 지역으로 편입시킨 지 이틀 만에 내려진 조치다. 대만 보건당국은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만인이 이들 지역에 여행을 할 때 방역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남태평양의 소국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국가’로 지정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 국가는 한국에서 머물다 14일 이내에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하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 추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베트남은 자국민들에게 한국의 코로나19 발생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브라질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이 밖에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이 한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4일간의 의학 관찰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출장자·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에 격리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코로나19 우려로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틀 전부터는 현 지 언론 보도를 인용, 이스라엘 보건부가 22일 저녁 ‘한국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심야에 이 발표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작전 14일 이내에 중국에 체류한 외국인만 입국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효선 기자 hsbun@

방역 초기 숨은 환자 놓쳐 확진자 ‘눈덩이’

지방분권·폐렴 소견 등에 한정 방역당국, 초기 사례정의 실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60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5명으로 전날보다 3명 늘었다. 대구 신천지교회(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성전) 관련 환자는 329명으로 전체 환자의 절반을 넘었다. 청도 대남병원에선 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등 111명의 확진환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3명은 대남병원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327명, 167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항체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이고, 경증에서도 전파가 된다는 코로나19의 특성에 교회·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더해지면서 확진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남병원의 경우) 폐쇄병동의 밀접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접촉 형태, 환기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의 감염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증상이 미미한 환자가 본인의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외부활동을 지속해 병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방역당국 책임론과 연관된다. 방역당국이 초기 사례정의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중국 방문력, 확진 환자 접촉력, 폐렴 소견 등에 매몰돼 ‘숨은’ 환자들을 놓쳤다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상향도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 감염에서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됐음에도, 감염병 대응이 유입 차단에 집중된 봉쇄 전략에 치중돼서다. 김동현 한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예방의학전문)는 전날 법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와 기자회견 간 간담회에서 “(방역망) 밖에서 (전파가) 확인된 건 일주일 정도 됐는데, 대구에서 집단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에선 콘택트 트레이싱(contact tracing)을 통해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역 전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뒤늦게 봉쇄 전략에서 완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지역적으로 지역감염이 확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감염 경로나 발병 후의 동선을 조사하고 있는데, 주로 가족과 의료기관, 직장 중심의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접촉자를 중심으로 일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슈퍼 추경’ 추진... ‘자동차 개소세 인하’ 부활 검토

어떤 특단대책 내놓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을 넘어서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정부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비상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 극약 처방까지 더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린다...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 담길 듯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결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대책에는 단기간 내 시행 가능한 모든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열거하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 △면세농산물·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구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소비쿠폰 지급 등 추진

정치권 “긴급 추경” 한목소리
‘메르스’ 11.6조 뛰어넘을 듯

매금액 환급 대상·비율 확대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관광·항공·해운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코로나19 상황 진정 시 임시공휴일 지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내수 활성화 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연말에 종료했으나, 이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 활력을 위한 대책이란 상징성이 큰 데다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상황도 감안한 조치다. 특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



23일 오후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을 한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에서 상가연합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한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구입한 소비재 품목

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부가세 환급 품목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은 재정 동원 대책으로 유력하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 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 원... 코로

나19 추경, 역대급으로 나오나 = 그러나 정치권은 정부에 강력하게 추경 편성을 요청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하방 압력”이라며 “(정부는) 3조4000억 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함과 동시에 추경을 편성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유성엽 민주통합 의원모임 대표가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협조할 뜻을 밝혀 여야가 추경에 뜻을 함께한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정부 제출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임을 약속시킨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5년 메르스가 확산할 때 11조6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며 2003년 사스 때도 7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메르스와 사스 때보다 큰 만큼 당시를 뛰어넘는 ‘슈퍼 추경’이 예상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힘 실리는 ‘2월 금리인하’

전문가 13명 중 7명 “2월 인하”... 4명은 “상반기 내”
11명 “한은 성장률 전망 낮출 것... 최대 0.2%p 하향”

한국은행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설령 금리동결이 이뤄지더라도 올 상반기 중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은 수정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내지 0.2%포인트 하향조정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치 1.0%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23일 이투데이가 채권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명이 2월 금리인하를 예상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크게 확산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정책 총동원령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부터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지난주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기준금리를 비롯한 각종 가용 정책 수단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백운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기준반도체 중심 수출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훼손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수출관련 지표도 부진하다. 애플의 전망 미스에서 보듯 공급뿐 아니라 수요 쪽 부진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1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평가했던 국내경기 평가가 사실상 무효화된 셈”이라며 “전염병 관련 이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다른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까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선제적 인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금리인하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최근 이주열 총재가 언급했듯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금융중

전문가 2월 기준금리 예측 및 향후 전망

이름(소속)	기준금리	
	2월	향후 전망
강승원(NH투자증권)	인하	연중동결
공동락(대신증권)	인하	연중동결
김명실(신한금융투자)	인하	연중동결
김유미(키움증권)	동결	4월 인하
김자만(삼성증권)	인하	연중동결
백운민(교보증권)	인하	연중동결
신동수(유진투자증권)	동결	5월 인하
신 일(SK증권)	인하	4분기 인하
오창섭(현대차증권)	동결	연중동결
윤여삼(메리츠증권)	동결	4월 인하
이재형(유안타증권)	동결	추경논의시점
조용구(신영증권)	인하	연중동결
하정인(KTB투자증권)	동결	5월인하

※출처: 각사, 이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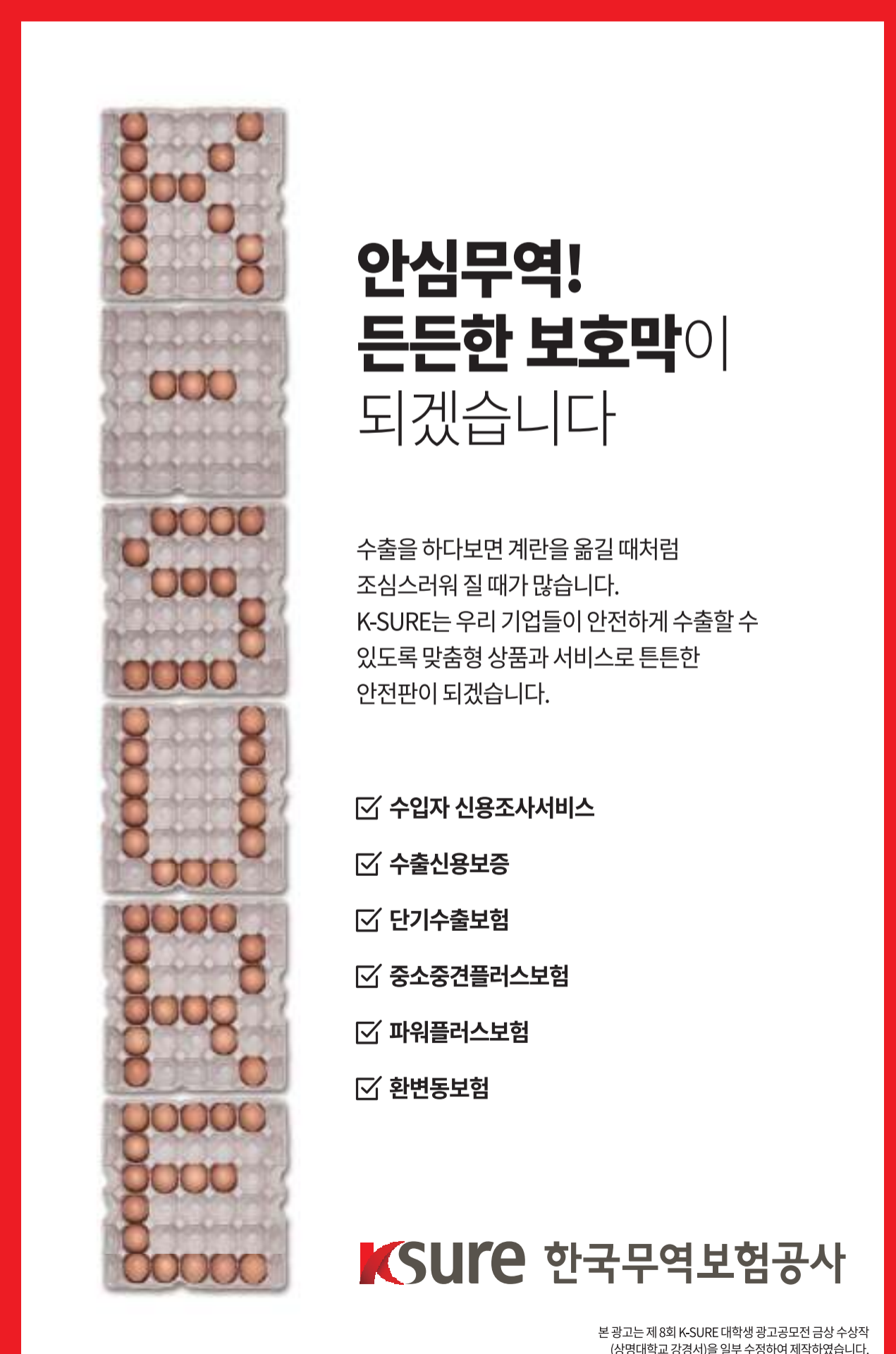
개지원대출 활용이 우선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정책이 경기부양보다는 부동산 불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경기부양에는 금리인하 카드가 빠질 것”이라고 봤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정부 초점도 그렇고 시장 유동성 공급이 중요할 것 같다. 한은도 금중대를 활용해 영세소상공인이나 유통업체, 의료기관들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한 방향이 될 것 같다. 실효성 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보다) 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월엔 동결하지만 향후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우세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는 약간 (인하) 신호를 주는 정도가 되겠다. 추경과 같이 맞물려 인하하는 것이 심리제고 등 부분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이 내놓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는 11명이 기존 전망(2.3%) 대비 0.1%포인트 내지 0.2%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7명이 기존 전망(1.0%)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안심무역! 튼튼한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하다보면 계란을 옮길 때처럼
조심스러워 질 때가 많습니다.
K-SURE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로 튼튼한
안전판이 되겠습니다.

- 수입자 신용조사서비스
- 수출신용보증
-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플러스보험
- 파워플러스보험
- 환변동보험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본 광고는 제 8회 K-SURE 대학생 광고 공모전 금상 수상작
(상명대학교 강경서)을 일부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사업장 섯다운 현실화... 산업수도 울산 ‘초비상’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일시 폐쇄 ‘업계 충격’

접촉 직원 자가격리 후 정밀방역... 24일 오후 재가동 예정
현대중 울산 본사 열화상 카메라 설치, 현대차 방문객 제한
SK에너지 직원 체온 측정 등 울산지역 기업 선제대응 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에 이어 울산까지 확산한 가운데 주요 기업의 산업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앞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고 일부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사업장 섯다운’ 우려도 현실화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구는 물론 울산지역 주요 사업장까지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장 전체가

일시 폐쇄됐다.

회사 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을 즉각 ‘자가격리’ 조치하고 곧바로 정밀 방역을 실시했다. 구미사업장은 방역을 거쳐 이틀만인 24일 오후부터 재가동한다.

LG 계열사도 대구와 경북 인근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구미공장 직원 가운데 대구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를 상대로 재택근무 또는 공가를 내도록 조치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대구 확진자와 접촉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 정문에서 보안 요원이 열화상 카메라로 납품 차량 운전자의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신입사원이 나와 20일 이전캠퍼스 임직원 80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와 경북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산업수도’인 울산까지 이어

졌다. 울산에서도 20대 확진자가 나온 만큼, 사업장별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4일부터 울산 본사 주요 출입문 7곳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체온을 재기로 했다. 협력사를 포함 2만 7000여 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현대차는 일찌감치 7일부터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 중이다. 확진자와 접촉자 증가에 따른 사업장 감염 리스크 저하가 기본 목적이다.

일단 외부 방문객은 기본적으로 출입을 제한한다. 나아가 모든 공장 출입문에 열화상 카메라를 배치해 체온을 확인 중이다. 발열 등 감염 의심자는 ‘발견 즉시 퇴거 조치 한다’는 지침도 내렸다.

자동차 공장의 특성상 생산라인에 따라 줄지어 근무하는 만큼, 근로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제조업보다 근로자 수가 적지만 석유화학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SK에너지 울산공장은 회사와 공장, 구내식당 등을 출입하는 직원을 상대로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울산 확진자 발생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장이 한 번 멈추면 막대한 생산 피해와 손실이 불가피한 사업장들이다.

이처럼 주요 기업들은 대구·경북을 비롯해 울산 지역 등에 감염병 확산을 대비 중이다. 국내의 출장 자제는 물론, 다중 집결 행사 취소 등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업장 폐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그러나 확진자가 나오면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의 감염 리스크 저하가 급선무로 떠올랐다”며 “자동차와 화학 업종의 경우 며칠만 가동을 멈추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이어진다. 감염증 사전 차단이 최우선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항공·여행·면세업계 ‘직격탄’ ... 단축근무·휴직 확대

아시아나 임원 급여 20% 이상 반납·전 직원 10일간 무급 휴직
중소 여행사들 폐업 우려... 확진자 다녀간 면세점 ‘수백억 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항공·여행·면세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노선 축소와 관광객 감소로 비상경영에 돌입하며 유급휴가까지 속속 도입할 태세다.

23일 항공·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 수송량은 79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데 이어 감소세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여행업계와 면세업계는 유급휴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고용유지지원 신청은 21일 기준 총 644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그중 여행업이 30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항공사들은 임원의 임금 삭감과 무급휴

가를 도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 반납을 결정했다. 전 직원 무급휴직 10일도 실시한다. 제주항공도 경영진이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하고 무급휴가를 도입한다. 이스타항공도 상무보 이상의 임원은 임금(급여) 30%를, 임원을 제외한 본부장 직책자는 직책 수당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운항·객실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상대로 근무 단축 신청을 받기로 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희망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비상이다. 이달 들어 신규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향하는 한 여객기의 좌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뉴시스

예약이 80~90%나 줄어들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됐다. 하나투어는 2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3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모 두투어와 노랑풍선은 다음 달부터 최대 2개월간 전 직원 유급 휴가를 시행한다. 중소형 여행사들의 경우 휴업이나 폐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면세업계도 마찬가지다. 중국인 관광객과 보타리상 의존도가 높았던 면세업계는 외국인 고객뿐 아니라 여행이나 출장 수요가 줄면서 매출 부진이 심각하다. 확진자 방문으로 며칠씩 휴업하는 매장까지 나오면서 업계에서는 매출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관측했다. 일부 면세점은 무급휴직

·유급휴직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은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시행할지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SM면세점의 모기업인 하나투어 역시 고용유지지원을 신청해 유급휴직을 시행한다. SM면세점은 자체적으로 무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들은 코로나19 이후 확진 환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며 줄줄이 폐업했고, 운영 시간 역시 단축했다.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2일 임시 휴업해 5일 만인 7일 재개장했고, 롯데면세점 본점은 7일 휴업해 3일 만인 10일 다시 문을 열었다. 임시 휴업 기간 이들 매장의 매출 손실은 각각 800억~1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다. 박미선 기자 only@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 '연동형 비례' 성적도 변수

여야 '총선 시나리오'

與 "150석 획득, 국정동력 확보"
수도권 방어·호남 탈환 방침
통합당 "PK 의석수 회복 사활"
위성정당 비례대표 싸움이 기대

4·15 총선 서울 격전지 3곳 여야 대진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4·15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각 정당에 사활을 건 총선거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시가상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만큼,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국정동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2년 뒤 차기 대선 구도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게 돼 국내 정치 지형에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의 총선 청사진, '수도권 방어+호남 탈환'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모두 '과반 의석'인 150석 달성을 이번 총선의 목표로 제시했다. 두 당의 현재 의석수(129석, 114석)를 훌쩍 웃도는 수치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원내 1당'이 되기만 해도 총선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선거대책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공식 선거제도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시나리오는 크게 '수도권 방어'와 '호남 탈환'으로 요약된다. 민주당은 20대 총선 당시 서울(35석)·인천(7석)·경기(40석) 등 수도권에서 총 82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 수도권 의석 122석의 67.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민주당이 20대 총선 전체에서 '원

내 1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다만 수도권 여론 환경은 지난 선거와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서 이른바 '친박(친박근혜) 공천' 파동이 불거진 영향으로 중도층이 대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번에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영업인재 2호 원종건 씨의 데이트 폭력 논란,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 취소 사태, 서울 강서갑 공천 논란 등 악재가 이어진 데 따른 당 안팎의 우려도 크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의석수를 회복하는 것도 이번 총선의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당시 '안철수 돌풍' 영향으로 호남에서 3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줄어든 의석 이상을 호남에서 얻어야 최소한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반대했던 '연동형 비례'에 기대감 = 미래통합당이 가진 시나리오는 '수도권'과 'PK(부산·경남)'에서 의석수를 회복하는 것이다.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수도권 전체 122석 중 사상 최저승률인 35석(28.7%)으로 참

패한 바 있다. 당시 서울, 그중에서도 강북은 사실상 '전멸'이었다. 통합당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결과가 19대 총선만큼만 나와도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에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통합당이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승인한 뒤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싸늘이'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한국

를 넘었고 60대 이상은 70%에 가까웠다. 통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보수적 투표성향을 띠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질수록 보수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수도권 박매치' 속속 윤곽... '1명 당선' 이상의 의미 = 총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대표적 인사들 간 대진표가 형성된 '수도권 격전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수도권의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의 성패는 단순히 '당선자 1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일찌감치 유력 대선주자들의 '박매치'가 성사돼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일전을 벌이게 돼 대선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현재로서는 이 전 총리가 앞선 가운데, 황 대표가 추격하고 있다는 게 각 캠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황 대표 측은 "추격할 일만 남았다. 선거 전에 따라잡으면 이기고 못 따라잡으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민주당 '시스템 공천' 한다더니 곳곳 충돌 통합당, 보수통합 하자마자 '형평성' 시비

與도 野도 '공천 잡음'

민주 '조국 내전' 내용 겨우 정리
통합, 이연주 공천 놓고 '시끌'

4·15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잡음이 감지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거나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총선도 '네거티브'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공언했지만, 이른바 '조국 내전'으로 내용을 겪었다가 교통정리를 끝냈다.

강서구갑 출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던 '조국 백서' 필진 김남국 변호사는 다른 지역 전략 공천에 배치하는 한편 강서구갑 지역은 현역의 금태섭 의원과 공천을 신청한 다른 예비후보자들 간에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어렵사리 사태를 봉합했다.

그러나 당내 공천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올 조짐이다. 4선 오세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당 내 현역 3번째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자로 결정되자 즉각 무소속 출마 입장을 밝혔다.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양)도 컷오프 대상이 되자 지도부에 반발하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유영록 전 김포 시장은 경기 김포갑의 유력한 후보였으나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

원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면서 탈당을 검토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보수통합을 이뤄낸 미래통합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예상된다. 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 화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만 이루다 보니 공천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다.

'문자 메시지 논란' 이해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결국 컷오프됐다. 공천 면접 분당일 반나절도 안 돼 단수추천 대상에서 배제됐다. 앞서 유승민 의원은 이 의원에게 "이연주나 새보수당이나 통합은 마찬가지로, 이연주는 힘지인 경기 광명을 피해서 부산으로 단수공천 받고, 이해훈은 컷오프, 지상욱·민현주는 수도권 경선, 하태경은 경선... 이런 결과가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연주 의원의 부산 중·영도구 전략 공천 여부를 놓고도 당내 반발 조짐이 감돈다. 김무성 의원 등은 이 의원이 전략공천될 경우 지역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했다.

당대표급 중진들도 '수도권 힘지 출마'를 압박받는 등 공관위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공관위로부터 흥준표 전 의원의 경우 서울 구로을, 김태호 전 의원은 경남의 민주당 지역 출마를 제안받았으나, 각각 양산을과 산청·함양·거창·함천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흥 전 의원은 정계은퇴나 무소속 출마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마음센터

이곳에선
마음도 쉬어간다

어제는 해지는 장면에서
한참을 쉬어가더니

오늘은 바다를 횡단하는
갈매기의 날개에서

별을 보는 목동의 오두막에서
소녀를 업고 달리는
소년의 등 위에서

그렇게, 한참을 쉬어간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센터

* 현대해상 '마음센터'는 환자들을 위해 병원 내 도서관 운영 및 문화활동을 지원해주는 현대해상 사회공헌 프로젝트입니다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문 대통령 “규정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 대응” 주문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전문가 권고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하고 비다.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히 확인해 조기 치료하고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방역당국, 지역 주민이 혼연일치 돼 총력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 집단 감염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가 주재하는 재난안전대책을 격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 대응해 달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구와 경북 정도 등 특별관리지역 조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민간의료 기관과 의료인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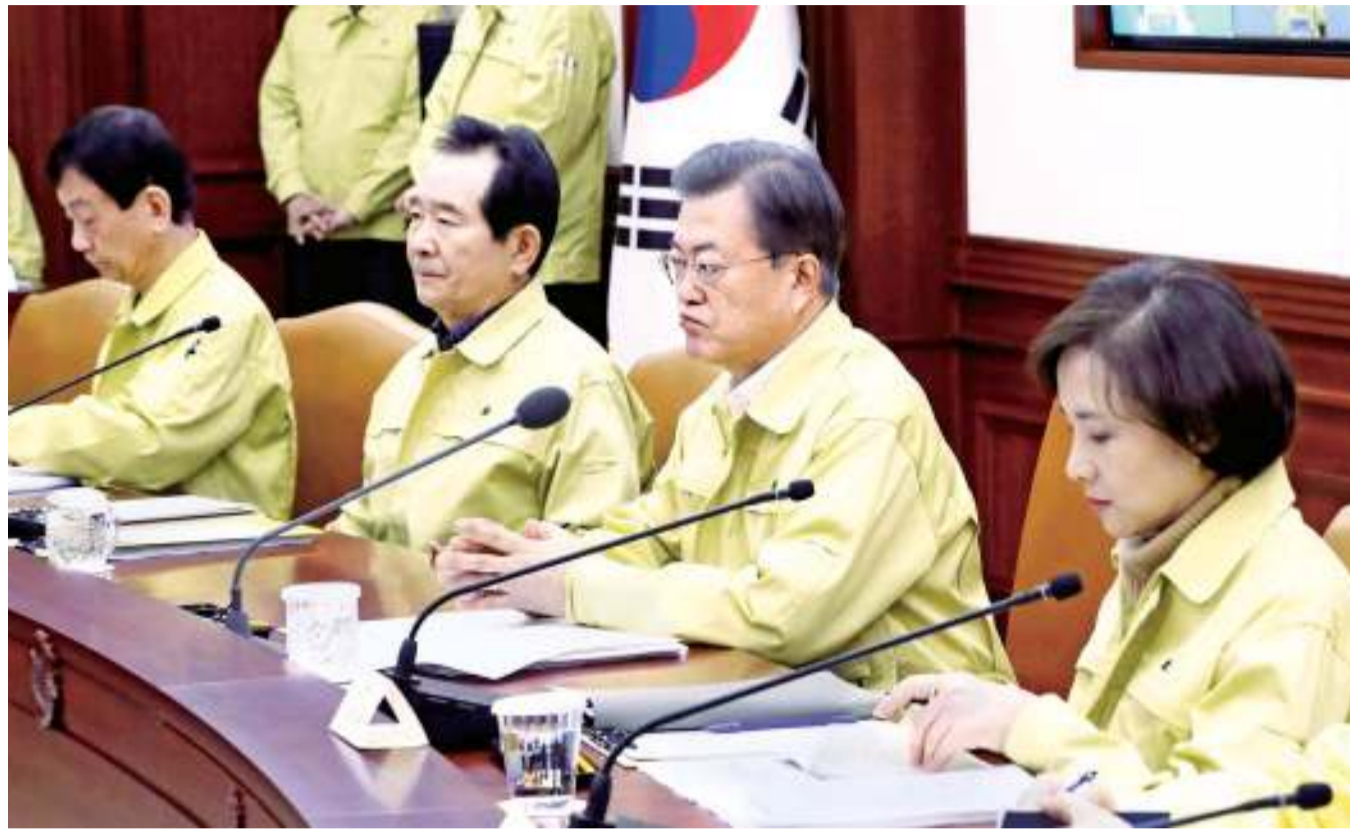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신천지 집단감염, 중대한 분수령 정부·주민 등 혼연일치 대응해야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길 수 있어 국민, 정부 신뢰하고 협조해 달라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통제에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철저한 통제 속에 관리하면서 외부 확산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발원지인 신천지에 특단 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확진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말 동안 기존 유증상자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증가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천지 폐쇄는 유증상자들) 신속히 가려내 치료하고 격리 보호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구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고 관리에 나선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 제한이 아니라 공동체 안전을 위한 것이며 신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종교와 일반 단체도 마찬가지로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히 확인했다”면서 “국민 일반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방식의 집단행사는 실내뿐 아니라 옥외에서도 자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신뢰하고 협조해 달라. 자신감을 갖고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면서 “신뢰와 협력이 이기는 길이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종로에 황교안... 구로을 김용태, 송파갑 김웅

통합당 공천 작업 속도

친박·강남지역 대거 컷오프

미래통합당이 23일 황교안 대표를 서울 종로에 단수추천키로 확정했다. 서울 구로을에는 김용태 의원, 송파갑에는 김웅 변호사를 단수추천키로 했다.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로 후보자가 공석이었던 서울 강서을에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전략공천한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을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후보자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학재 의원과 강병석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인천 서구갑지역은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석연 한국당 공관위 부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단수후보로 추천된 황대표가당 최고 위원회의를 거쳐 종로지역 후보로 최종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종로 대전’이 본격화한다.

구로을과 강서을은 모두 청와대 출신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과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포진한 지역이다.

통합당은 구로을에 양천을을 떠나 ‘힘지 출마’ 의지를 밝힌 3선의 김용태 의원을 대항마로 투입했다. 구로을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리 3선 한 곳으로, 통합당에 대표적인 힘지다.

강서을에 투입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다. 여권의 청와대 출신 인사를 겨냥한 ‘자객 공천’으로 풀이된다.

송파갑에는 ‘검사내전’ 저자인 부장검사 출신 김웅 변호사를 단수후보로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보수당 시절 영입된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

관의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사직한 김 변호사를 전면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을 이슈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인천 서구갑은 현역인 이학재 의원과 강병석 전 인천 서구청장의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경선은 28~29일이다. 통합당은 24일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면접을 예정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화상면접을 검토 중이다.

한편 통합당은 친박 핵심으로 통했던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과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이혜훈(서울 서초갑), 이은재(서울 강남병) 의원을 한꺼번에 컷오프 했다. 이혜훈 의원은 새로 운보수당 출신이고, 이은재 의원은 바른정당 복당파다. 두 의원 모두 비박계로, 향후 공관위의 물갈이 칼끝이 친박과 비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정일환 기자 whan@

코로나19에 중소 해운물류기업 타격

“세계·재정 지원 검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중국 물동량이 많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소 해운물류기업의 손실도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중소 선사 등에 세계·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3일 해양수산개발원의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중국 수출입업체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교역량 감소로 이어져 운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운기업들도 운항수익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정부는 이달 17일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여객부문은 항만시설사용료, 여객터미널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대출, 화물운송-중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경우 매각 후 재입대를 통한 유동성 공급 및 선박금융에 대한 납부 유예, 선박검사 3개월 연장, 항만은 대체장지장 확보 및 사용자 감면, 환적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개발원은 장기운송화물계약에 가진 대형 선사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선박운항 측면에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중소형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익 현금 흐름이 없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겨울철 비수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따른 연료비 인상 요인과 함께 운송수요 급감에 따른 유동성 확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추정했다. 고정비로 주어진 인건비와 용선료 지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 입출항 선박에 대한 최소 2주간의 관할 기간을 두고 입항을 허가하는 상황에서 운항 기간이 2주가 안 되는 중국 관련 항로 비중이 큰 경우 수익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선사 및 물류업체에서도 단기 물동량 감소, 운임하락, 중간 물류서비스 원가 상승 등을 수익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서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컨테이너 박스 수급 및 장치장 적체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청년내일채움공제’ 中 小 企 職 員 21% 만 기금 받고 퇴사

대부분 급여 많은 곳으로 이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금을 받은 사람들 중 약 21%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노동연구원원의 ‘노동 리뷰’ 2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 2016년 7월 이후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만기금을 받은 청년 근로자는 지난해 7월까지 1만 567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1만 2399명(79.1%)이었다. 나머지 3278명(20.9%)은 퇴사했으며 이 중 미취업 상태

인 사람은 1955명이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일부 지원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둔다.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해 1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받는 3년형으로 나뉜다.

보고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의 약 80%가 근속을 유지한 데 대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근속 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최초 만기 발생 시점이 도래한 이후 긴 시간이 흐르지 않은 만큼 만기

이후 이직 비중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고 재취업한 사람(1323명) 중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으로 간 사람은 1165명(88.1%)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원래 취직인 중소기업 근속 유지를 넘어 숙련 형성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위해 근속 유지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근속 유지를 위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공정위,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 과징금

하청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동호건설이 과징금 철폐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호건설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해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 낮은

금액(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이러한 행위는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새벽은
I am your Energy다

할 수 없지만 일어나야 하는 시간

고요함에게서 배우는 시간

새로운 오늘과 마주하는 처음

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늘 다르게 살아가는 시작

너는 나를 넘어서는 법을 가르쳐주며,

매일매일 그렇게, 너는 나를 깨워간다

너는 나의 에너지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2019 국가고객만족도(NCSI)
주유소 부문 11년 연속 1위

외출 못하고 식료품도 부족...희망 사라진 '유령도시'

봉쇄 한 달...지금 中우한에선

단지마다 엄격 통제...공포에 떨던 식재료 구매 오래 걸리고 품목 한정 일 못해 수입마저 끊겨 절망 배가 의료 종사자·시설 여전히 태부족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임시 병원에서 21일 자원봉사자와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식사를 나눠 주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2일 중무장한 시민이 오토바이를 타고 적막감이 감도는 우한의 안개 낀 도로를 달리는 모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발병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봉쇄령이 내려진 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 현지 주민들은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면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23일 일본 NHK 방송과 니혼게이저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23일부터 우한을 오가는 항공편·기차 등의 운행을 중단하고, 외부로 가는 도로마다 검문소를 설치했다. 11일부터는 서울 면적 10배 이상 크기인 우한에서도 아파트 단지 등 주거 구역별로 봉쇄조치를 하는

등 인구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격리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식료품은 구하기도 힘든 데다가 가격도 많이 뛰었다. 우한 도심 아파트에 사는 한 30대 여성은 "단지에서 나가기 힘들다"며 "식료품 구매 또한 제한돼 자유롭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는 "채소, 고기, 쌀, 기름 등 기본적인 상품은

구할 수는 있으나 질이나 가격 측면에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미료 등은 아예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우한 도심 아파트에 거주하는 또다른 30대 남성 역시 불편한 상황을 토로했다. 그는 "봉쇄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외출해서 물건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단지마다 엄격한 봉쇄가 이뤄져 기본적으로 외출이 힘들어졌다"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는 있지만 한참 전에 예약해야 하고, 배송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로 손발을 빼앗긴 다수의 우한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활용,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에 따르면 현지 슈퍼마켓 앱을 이용해 식료품 등을 주문할 경우, 빠르면 몇 시간 안에 물건을 구할 수 있다. 다만 구할 수 있는 품목은 고기, 채소 등으로 한정된다. 그나마 채소도 일부 종류만 살 수 있다.

특히 일을 하지 못해 수입이 끊겨버리면 서 이들의 절망은 배가 됐다. 이 남성은 우한 시내에서 식품 관련 직종에 근무했는데,

현재 실직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우한 봉쇄령 이후 근무를 할 수 없게 됐고, 급여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향후 기업 활동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우한으로 돌아오지 않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어느 업종이나 재개해도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량의 정리해고가 예상되며, 일부 도산하는 곳도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의료 종사자 및 시설도 여전히 절대적 부족 상태에 있으며, 학교도 문을 닫아 온라인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우한이 포함된 중국 후베이성에서는 22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630명, 사망자가 96명 각각 늘었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1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 전체로 보면 누적 확진자가 7만7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는 2400여 명에 달해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변호선 기자 hsbun@

"中 올 성장률 6% → 5.6%" 한 달 만에 전망 낮춘 IMF

세계 성장률 3.2%로 0.1%P 하향 '코로나19' 장기화 땀 더 낮출 듯

국제통화기금(IMF)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6%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포인트 낮췄다. 혼란이 장기화하면 전망치를 더욱 낮출 것으로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막 직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IMF의 전망대로 되면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이 시나리오대로

라면 중국 경제는 올해 2분기 정상화하고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고 단기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이 예상보다 더 오래,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더욱 가혹한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성장률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2%로 0.1%포인트 하향했다. 지난달에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 대비 0.4%포인트 오른 3.3%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불과 한 달 만에 번복한 것이다.

이번 회의 개막 전부터 G20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수습과 영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참석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나마스테 트럼프' 10만 인도인 만나다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에서 22일(현지시간) 경찰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나란히 있는 대형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는데, 첫날에는 세계 최대 크리켓 경기장 '사르다르 파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나마스테(안녕이라는 뜻의 힌디어) 트럼프' 행사에 참석해 모디 총리와 '브로맨스'를 과시할 예정이다. 이 스타디움은 트럼프의 방문에 맞춰 공식 개장하며, 행사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메다바드/AP연합뉴스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버핏, 투자처 못 찾은 돈 '주주 환원'에 쏟아

작년말 현금 155兆 '사상 최대' 자사주 매입 적극 나설 뜻 시사 "퇴진 100% 준비...걱정 말라"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쥐고도 '사냥감'을 찾지 못한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결국 주주 환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버핏 회장은 22일(현지시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오마하의 현인' 버핏은 이날 버크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양질의 회사를 적절한 가격에 현금으로 살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며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M&A) 없이 쌓여만 가는 현금을 자사주 매입에 적극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19년 말 시점에 버크셔의 현금은 전년보다 14% 증가한 1280억 달러(약 155조 원)로 사상 최대



였다. 버크셔의 2019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배 늘어난 814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시키는 회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애플 등 거액의 상장주를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는 추가 향배에 손익이 좌우되기 쉬운 상황이다.

2018년도 4분기의 경우,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평가손익이 순이익에 불어나 연간 순이익이 크게 줄었지만, 2019년 4분기에는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났다. 이에 버핏은 영업이익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버크셔는 보험과 철도, 전력회사 등 여러 사업회사를 산하에 두고 있어 거대한 '콩글로메리트(업종이 다른 이종기업끼리 결합한 복합기업)'에 가깝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이 많아 미국 경기 확대의 혜택을 받는다.

버크셔의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의 사용처였다. 버핏은 이번 주주 서한에서 작년에 5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썼다고 밝혔다. 버핏은 그동안 대형 M&A를 노려왔는데, 기업 가치보다는 쟁탈전에 의한 가격 상승을 한탄했다. 이날 서한에서도 그는 "우리의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수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버핏은 자신의 은퇴 이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버크셔는 나의 퇴진을 100% 준비하고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은퇴를 예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떠나더라도 회사 경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코로나19' 손실 커지는데...보상 항목서 제외 무용지물 된 기업 '사업중단 보험'

'사스 트라우마' 보험사, 특약으로 빼 감염자 인한 폐쇄 때 보험금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대로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사태 때 비싼 수입료를 치른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은 사태 재발을 가정해 미리 보험을 들어뒀다.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사업중단 보험' 대상에서 '감염 확산' 항목을 없애거나 특약으로 빼 주로 화재나 테러,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사스 트라우마' 때문이다. 당시 사스 발병지인 홍콩에서

의 사업중단 보험 청구액은 3억2500만 홍콩달러(약 505억 원)에 달했다. 고급 호텔을 운영하는 만다린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1곳에서만 보험사들로부터 청구 보험금이 총 1600만 달러(약 193억 원)였다.

중국에서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는 패스트푸드 대기업 암치이나 대변인은 "우리가 계약한 보험사는 사스 유행 이후 보상 범위에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를 제외한다는 특별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암치이나는 현재 중국 매장의 약 30%를 닫아 1분기 영업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도 사스 때를 웃돌 가능성이다. 세계은행(WB)은 사스가 세계 경제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540억 달러로 추산했다. 보험사들은 공중보건 위협을 커버하는 고액의 추가 보상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는다. 감염자로 인해 폐쇄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인재 블랙홀' 그 회사 남다른 '메뉴의 품격'



글로벌 기업 '구내식당' 전쟁

글로벌 기업들이 사내 '먹는 문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멋진 공간과 맛있는 음식이 제공될수록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업무의욕이 높아져서다.

최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업들이 우수한 젊은 인재를 모시기 위해 식사 문화를 사내 복지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사무가구 제조업체 스틸케이스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내식당이 있는 기업은 61%였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었다. 인도가 82%로 가장 많았고, 영국과 미국은 각각 58%, 59%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국가는 폴란드로 42%에 그쳤다.

단순히 식당만 있는 것도 아니다.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매력적인 분위기에, 유명 레스토랑 요리를 먹는 것처럼 고급스러움을 추구한다.

이런 문화의 선구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다. 식사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위 '스타' 셰프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 구글은 일찌감치 식사 문화에서 혁신을 이뤄냈다. 전 세계 50개국에 있는 사무실에 구내 식당과 카페를 마련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공짜에 고가의 랍스터 요리부터 프렌치 토스트, 베트남 샐러드 등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구글의 가장 유명한 구내 식

구글, 50개국 지점에 식당 운영 샐러드부터 랍스터 요리까지 제공

드롭박스, 카페테리아 '턱 솥' 푸드 스타일리스트 영입 차별화

UBS, 호텔 같은 식사공간 마련 사내 요리교실도 열어 사기 진작

당으로는 뉴욕 맨해튼의 '헤미스피어'가 꼽힌다. 헤미스피어는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뷰도 갖췄다. 그야말로 입과 눈이 호강이다.

애플도 뒤지지 않는다. 애플 구내 식당인 '카페 맥'에는 미국식은 물론 멕시칸,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프랑스 음식들이 제공된다.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인 드롭박스는 카페테리아 '턱 솥'을 운영 중이다. 드롭박스는 다른 IT업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특별히 전 세계 유명 요리사들과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을 대거 영입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의 '카페 룩소'는 들어서자마자 영화 '토이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반겨준다. 안쪽 হল은 마치 파리의 오르세미술관에 온 느낌을 준다.

이에 뒤질세라 다른 기업들도 구내 식당



구글의 '헤미스피어'



드롭박스의 '턱 솥'



애플의 '카페 맥'



픽사의 '카페 룩소'

개조에 팔을 걷어붙였다. 유능한 젊은 인재들을 고급 구내식당이 있는 경쟁사에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스위스 금융기업 UBS는 미국 본부 내 식사 공간을 호텔 로비같이 아늑하게 꾸며 먹는 일을 즐겁게 만들었다. 사내 요리 교실도 열었다. 직원

간 협력을 북돋우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건축회사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젊은 층 우수 인력을 모셔오기 위한 관건 중

하나가 식사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먹는 일에 이토록 공을 들인다는 건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던 20년 전을 이렇게 회고한다. "당시 사무실에서 일만 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모두가 말했다"면서 "진정한 의미는 다양성의 요구였다.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사무실의 본질과 가치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변화의 바람을 전했다.

재택 근무가 늘어나는 등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구내 식당의 미래에 물음표가 붙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력적인 공간에서 직원들의 눈·코·입을 호강시키는 일이 기업들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공식은 변함이 없다.

홀리 윌리엄슨 넬슨월드와이드 이사는 "구내식당이나 음식에 버라이어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 일하러 오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구내식당 3가지 트렌드

- ①편안함 레스토랑·호텔 로비·카페처럼 공간 설계
- ②주문서비스 메뉴 주문하면 원하는 곳 배달
- ③지속가능성 지역업체에 일부 메뉴 조달 공생

구내 식당에도 트렌드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내 식사 공간을 좌우하는 3가지로 '편안함', '주문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제시한다.

우선, '편안함'이 중요하다. 식사 공간을 매력적이고 아늑한 곳으로 바꾸는 게 관건이다. 홀리 윌리엄슨 넬슨월드와이드 이사는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카페처럼 가고 싶은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회사 식당 설계는 호텔 로비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레스토랑의 서비스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쇼를 보는 등 체험형 외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눈앞에서 요리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또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직장은 물론 구내 식당에 점점 편안함이 요구된다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다. 그야말로 회사지만 회사 같은 공간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러니다. 매력적인 식사 공간이 있으면 고객과의 만남도 굳이 외부 카페로 갈 필요가 없다.

비용에 민감한 기업으로서는 잘 꾸며놓은 카페테리아를 최대한 활용해 회의 및 행사 등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주문서비스'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요리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면 배달 음식을 두고 따뜻하게 데우는 설비가

필요하다. 윌리엄슨은 "음식을 식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배달음식은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의 한 회사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인근 상점에 메뉴를 사전에 주문하고 매장에서 받는 구조다. 기업은 상점에 오늘의 메뉴를 주문하고 그것을 사내 주방으로 배달시켜 받는다.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은 직원이 원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식당에서 메뉴를 손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의 공생'도 빼놓을 수 없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구내 식당에 전력을 쏟다 보니 인근 지역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매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맞았다. 이에 페이스북은 회사 식당 메뉴 일부를 현지 업체에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원재료를 반경 800km 이내에서 조달하는 방침을 세운 기업도 있다.

영국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프랭크의 엘리엇은 복지 흐름과 관련 "구내 식당은 직원의 다양성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라면서 "고기 요리에 야채처럼 단조로운 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 S

필승 코리아

편안하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행투자상품은 예금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행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 ~ 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플루토 TF-1호>

금감원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상정... 전액 손실 막는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 구제 '올인'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부터 분쟁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이 접수한 라임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약 240건이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와 일부 펀드의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분쟁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은 14일 실사를 토대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46%)와 '테티스 2호'(-17%)의 기준가격을 조정하고 발표했다. 문제는 라임의 기준가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실사 결과를 수용해야 손실액이 산정되는데 손실 확정까지 원활한 작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24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 손실 가능성 은폐 펀드 판매 혐의 사기·착오 따른 계약취소 적용 뎀 투자원금 최대 100% 보상 가능

무역금융펀드를 주목하고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전액 손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은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 중 IIG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5억 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금감원은 IIG펀드를 포함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2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나면 플루토 TF-1호에서 전액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불완전 판매 외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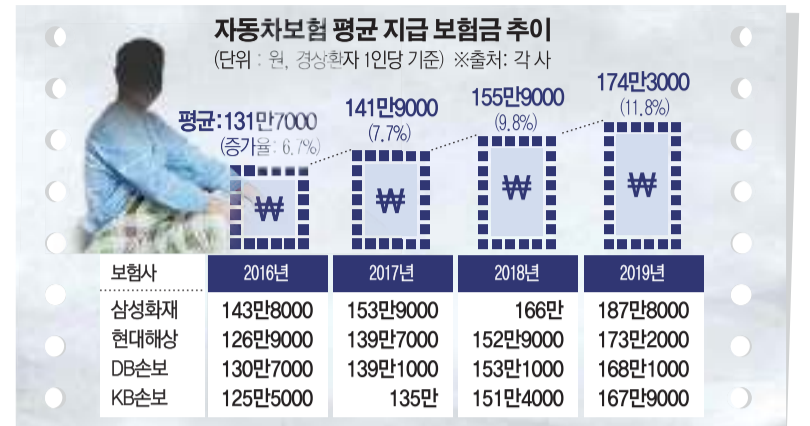
금융펀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IIG펀드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펀드를 판매한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IIG 펀드가 자산 동결이 된 만큼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액 손실이 난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다.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을 분담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내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꾸려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와 판매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에 들어간다. 무역금융펀드 사안을 다룬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3월), 법률자문(4~5월)을 거쳐 이르면 6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범근 기자 nova@



'나이롱 환자' 보험금 1인당 174만원 쉐켜

진료비 비싼 한방치료 늘어 보험 지급액 전년보다 12% ↑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한방치료가 늘고 SNS를 통해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같은 콘텐츠가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174만3000원으로 전년(155만9000원)보다 11.8% 증가했다.

경상 환자는 교통사고상해등급이 10~14등급, 보험금은 대인·타차대인·무보험차 등 3개 담보를 기준으로 했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2015년 123만4000원에서 2016년 131만7000원, 2017년 141만9000원, 2018년 155만9000원, 2019년

174만3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증가율도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 2019년 11.8%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의 증가율(11.8%)은 자동차보험의 전체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4.9%)의 2배 이상이다.

경상 환자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이유는 한방 치료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 기준)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61%나 될 정도로 경상 환자의 한방 선호가 높았다.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월등히 비쌌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2.7배나 됐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통사고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등 관련 콘텐츠 확산도 보험금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현대캐피탈, 獨 리스사 지분 인수... "모빌리티 전략 강화"

'식스트 리싱' 주식 41.9% 확보

현대캐피탈의 독일 금융법인인 현대캐피탈뱅크유럽(HCBE)이 현지 자동차 리스업체를 인수했다.

23일 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이 독일 렌터카 회사인 식스트(Sixt SE)와 식스트 리싱(Sixt Leasing SE)에 대한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전략적 지분 매수 계약 체결을 통해 식스트가 보유한 식스트 리싱 주식 41.9%(864만4638주)를 확보해 식스트 리싱의 최대 주주가 될 예

정이다. 인수 가격은 주당 18유로로 전체 인수가는 약 1억5560만 유로(약 2036억 원)이다.

식스트 리싱은 독일 뮌헨 인근의 폴락에 본사를 둔 유럽 내 주요 리스사로 디지털 및 모빌리티 컨설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현재 신규 사업의 34%를 온라인에서 취급하고 있는 등 선진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IT 시스템을 통해 개인 및 법인 고객 대상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은 식스트 리싱이 보유한 온라인 기반의 대고객 리스 판매 채널과 중고차 활

용 플랫폼을 확보하게 된다. 식스트 리싱의 유지 보수, 보험, 과징금 처리 등 차량 관리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노하우까지 활용하면 향후 모빌리티 시장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현대자동차 역시 기존 식스트 리싱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신규 모빌리티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황유노 사장은 "이번 인수로 현대캐피탈뱅크유럽의 모빌리티 플랫폼 비즈니스와 리스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유럽 자동차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ij@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Cloud Center

자동분개

자동회계처리 엔진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인생금융전문가 삼성생명FC’는 무엇이 다를까요?

생명보험 뿐 아니라 손해보험, 카드, 펀드까지!
인생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금융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손해보험, 카드, 펀드, 증권, 퇴직연금)을 취득한 경우 제안 및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인생금융전문가 삼성생명FC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고소득 전문직이니까!

컨설턴트 월평균 소득 407만원
상위 50% 소득 643만원
삼성생명 개인영업본부 자료(2016년 기준)

정년없는 평생직업이니까!

20대부터 90대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생직업

교육도 체계적이니까!

단계별 맞춤교육을 통해
재정전문가로 육성

지원 상담 : 1588-3114

삼성생명



한진칼 '남매의 난'에 전자투표 변수로 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 주총
캐스팅보트 소액주주 불참 우려
의결정족수 채우기 방안 고심
다음달 초까지 도입여부 정해야**

날짜	기업
3월 18일	삼성전자
3월 19일	현대차
3월 20일	SK하이닉스, LG이노텍
3월 24일	한화솔루션
3월 25일	한진칼
3월 27일	포스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 중인 가운데,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주요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탓에 소액주주들이 주총 현장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 결국 '의결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요 기업이 서둘러 전자투표제를 검토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소액주주와 주요 기관이 '캐스팅 보트'를 원 만큼 재계의 관심도 커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먼저 삼성전자는 내달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현대차와 SK하이닉스, LG이노텍 역시 내달 19~20일로 날짜를 잡았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은 이미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요 기업이 현장 주주총회를 준비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칫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장 주주총회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주총 현장을 꺼릴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결국 주요 기업이 서둘러 전자투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한진칼 주총(25일)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건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조현아-KCGI-반도건설 등 3자 주주연합이 이에 맞서고 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 회장(33.45%) 측의 한진칼 지분과 3자 주주연합의 지분율(31.98%)이 비슷한 상황. 결국, 양측의 팽팽한 표 대결 속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소액주주들이 캐스팅보트를 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만큼,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소액 주주들의 참여율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액주주들의 한진칼 지분율은 31% 수준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한 3자 주주연합은 표를 확보하기 위해 한진칼 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그룹은 전자투표제에 따라 주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막판까지 도입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투표제를 이번 주총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달 초까지 예약결재원이나 증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자투표제를 현재 하지 않는 기업은 제도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진그룹은 올해 주총에서 경영권 소유 여부와 관련된 안건을 다루는 만큼, 제도 적용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유창욱 기자 woogi@

SK, 배터리 조기 패소 반격 "美 공장 투자·일자리에 타격"

ITC에 예비판결 이의 제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 패소(Default Judgment)' 예비판결((Initial Determination)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23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 변호사대리인은 ITC에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특허쟁송 실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ITC는 소송 당사자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판사(ALJ)의 예비판결에서 불리하게 결정된 모든 쟁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더 나아가 신청서를 통해 제기하지 않은 쟁점들은 추후 당사자가 ITC의 최종 판결에 불복, 항소하더라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캐머런 앨리어트 ALJ의 '조기 패소'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첫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앨리어트 ALJ는 14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청을 인용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와 관련해 최근 ITC에 신청서 제출 기한을 28일까지 3일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이 요구서에서 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과 연루된 투자나 일자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단순히 자사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말 미국 조지아주 잭슨카운티 커머스에 연간 9.8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내년 하반기 기계적 완공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본격 양산은 2022년 초부터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더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급성장하는 미국 시장을 고려해 단계별로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1차 투자에 버금가는 수준의 연내 추가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2공장 설립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제기와 동시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LG화학은 합의 조건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LG화학으로서도 굳이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LG화학의 요구 사안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BTS와 뉴욕 타임스퀘어서 수소캠페인 현대자동차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글로벌 수소 캠페인'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영상은 '파란 하늘', '첫눈', '숲' 등 아름다운 대자연이 삶에 주는 감동을 주제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4월 중순까지 '지키고 싶은 자연'을 주제로 고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비하인드 콘텐츠를 공개하는 참여형 온라인 갤러리 이벤트도 운영한다.

사진제공 현대차

렌터카 앞세워 모빌리티 키우는 대기업

**통합 'SK렌터카' 롯데 바짝 추격
현대차 '유럽 4대 업체' 지분 인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요 기업이 렌터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2) 쏘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기업의 모빌리티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9일 타다와 관련

해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세계에서는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가장 적극적이다. SK네트웍스는 자사의 렌터카사업부와 지난해 인수한 AJ렌터카의 통합 법인 'SK렌터카'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K네트웍스의 시장 점유율은 11.7%, AJ렌터카 점유율은 9.0%로 각각 2위와 4위였다. 양사 점유율을 단순 합산할 경우 20.7%로, 1위 롯데렌탈(23.5%)을 바짝 뒤쫓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싱가포르 그룹, 미국 엘티브, 영국 어라이벌 등과 잇달아 협력을 약속하며

모빌리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대캐피탈을 앞세워 유럽 4대 렌터카 업체 중 하나인 독일 '식스트' 지분 인수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와 손잡고 모빌리티 전문기업 '모션'을 세웠다. 상반기 안으로 자체 개발한 렌터카 통합 관리 시스템 '모션스마트 솔루션'에 대한 실증테스트를 마치고, 이 시스템을 중소 렌터카 업체에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이 렌터카 및 차량공유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는 것 역시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OCI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합작사 설립

2022년부터 연간 5만톤 생산

포스코케미칼과 OCI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되는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합작사를 설립한다.

석탄화학 분야에 접점이 있는 양사가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위해 협력해 성장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케미칼과 OCI는 21일 서울 OCI 본사에서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 계약을 맺었다. 올해 2분기 설립될 합작사는 포스코케미칼이 51%, OCI는 49% 지분을 투자한다.

양사는 합작사를 통해 OCI 광양공장 내 4만2000㎡ 부지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과산화수소 생산공장을 짓는다. 철강 공정 부산물인 코크스오브가스(COG)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해 과산화수소를 제조하는

데, 핵심원료인 COG는 광양제철소에서 공급받는다. 생산공장은 올해 착공해 2022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산화수소는 친환경적 산화제로 표백제, 세정제 등에 널리 활용된다. 필수 멸균제로도 쓰여 메르스와 사스 때 멸균능력을 입증한 바 있고, 이번 코로나19에도 방역에 사용되고 있다. 전자급 초고순도 제품의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공정에서 식각과 세정에 사용되는 중요 소재 중 하나다.

양사는 "주요 반도체사의 대규모 생산설비 증설로 초고순도 과산화수소 수요가 급증하는 시장환경을 기회로 삼고, 국내 반도체 산업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를 안정적인 공급하기 위해 합작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삼성 '인도 탈환 작전' 갤럭시 M·A·S·Z 총출동

20만~200만원대 전방위 공략

삼성전자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중저가부터 프리미엄 스마트폰까지 속속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인도시장에 '갤럭시 M31'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후속작인 '갤럭시 M51'도 출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갤럭시 M 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보급형 전략 스마트폰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해 오프라인 유통비용 등을 줄여 가격대를 대폭 낮추자 인도에서 인기를 끌



갤럭시 M31

었다. 지난해 아마존 인도 사이트에서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 M10과 M20은 3분 만에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갤럭시 M31의 가격은 1만5000루피(약 24만 8000원) 정도로 추정된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대비 낮은 가격에도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용량은 끌어올렸다. 이 모델에는 F2.0 조리개값을 가진 3200만 화소 전면 카메라, 표준·광각·망원·심도 등 4개 후면 카메라가 장착될 전망이

다. 또 배터리 용량은 5000mAh에 달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A51'을 출시한 데 이어 이달 '갤럭시 A71'도 공식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갤럭시 S20' 시리즈와 '갤럭시 Z 플립'도 인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갤럭시 M 시리즈와 A 시리즈로, 프리미엄 시장은 갤럭시 S 시리즈와 Z 플립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은 인도시장에서 샤오미에 1위 자리를 내준 뒤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위로, 작년 4분기에는 비보에 2위 자리를 내주며 3위로 물러났다.

권태성 기자 tskwon@

재계, 이사회 책임경영 체제 강화

삼성전자·SK 등 '의장'에 사외이사 선임 늘어
여천NCC, 의결 통과해야 50억 이상 연구개발
한화솔루션, 주가와 연동 이사 성과급제 도입

재계가 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역할 강화하고 있다.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췄던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지난해 12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투자사업 및 연구개발 계획' 안건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천NCC는 △건별 투자비 100억 원 이상의 전사적 전략투자사업 △건별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의 일반투자사업 △비용 자산화를 위해 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별 투자비 500억 원 이상의 공장(또는 사업장) 정기보수 수행 사업 △건별 5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계획에 대

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다. 이같이 의결 대상 사안을 강화함으로써 여천NCC는 경영상 의사 결정에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여천NCC뿐만 아니라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크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이사회 역할 강화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의 다양성을 강화했다. 올해 주총 안건으로 올린 사외이사안은 △미국 에너지 산업 전문가인 어맨다 부시 세인트 오거스틴 캐피탈 파트너스사 파트너 △일본의 미래 신성장 산업 전문가인 시마 사토시 전 소프트뱅크 사장실장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이사회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가치와 연동된 장



장동현 SK(주) 대표이사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 SK(주)는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인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을 선임했다.

기 성과급 제도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적, 성별이 다양한 사외이사진과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사내이사의 조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주식 가치와 연동된 장기 성과급제도 도입해 이사회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2대 주주로 올라서자 최대주주였던 현대중공업 중심이었던 이사회 역할 확대하면서 소수 주주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총수 일가 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않는 추세 역시 이사회 독립성을 높여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달 21일에는 사외이사인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였다.

SK그룹 역시 지주사 SK(주)가 지난해 최대원 SK 회장이 아닌 사외이사 염재호 고려대 총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으며, SK이노베이션 또한 이사회 의장에 김종훈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선진화된 이사회 모델을 갖추게 됐다.

최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한진그룹 역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이사회 책임 경영을 활성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경우 경영진은 총수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경영상 의사 결정을 내려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사회 역할이 강화되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1월 스마트폰 출하량 작년보다 7% 감소

코로나19로 중국 수요 줄어
삼성보다 애플·화웨이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달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500만 대로 전년 동기(1억790만 대)보다 7% 줄었다.

전달(1억1900만 대)과 비교했을 때 16%나 감소했다.

중국에 공장을 둔 데다 현지 판매량이 많은 중국 화웨이와 애플이 직격탄을 맞았다. 화웨이 출하량은 지난달 1220만 대로, 전년 동기(1990만 대)보다 39% 줄었다. 또 작년 12월(1420만 대)보다는 14% 줄었다.

애플 출하량은 1600만 대로 아이폰XS 시리즈가 인기를 얻지 못한 전년 동기

(1560만 대)와 비교해서는 소폭 늘었지만, 전달(2560만 대)에 비해서는 약 38% 줄었다.

삼성전자 출하량은 2010만 대로 전년 동기(2050만 대)나 전달(2030만 대)보다 1~2% 줄었다.

SA 측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1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시작된 실적 악화는 1분기는 물론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4월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출시를 비롯해 화웨이, 샤오미, LG전자 등 주요 업체가 신작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 판매량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업체는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중국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지 않고, 중국 내 판매량도 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두산밥캣 "인도 백호로더 1100대 판매 목표"

1조원 규모 세계 3위 시장

두산밥캣이 백호로더(Backhoe Loader)를 앞세워 인도 소형 건설기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백호로더는 전방에 로더를, 후방에 굴착기를 장착한 다목적 건설장비다.

23일 두산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올해 인도 시장에서 최대 1100대의 백호로더를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되고 있는 백호로더는 인도 첸나이 공장에서 양산된다.

두산밥캣의 백호로더는 인도 시장에 선보인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우수한 기능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췄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두산밥캣 관계자는 "기존 현지 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당사 백호로더의 기술력은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올해 1100대 판

매량을 달성하고, 2022년에는 현지 시장 점유율 3위 목표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두산밥캣의 인도 소형 건설기계 시장 공략은 오래전부터 이뤄졌다. 1990년대 현지에 진출한 이후 지난해까지 약 60개 이상의 판매량을 구축하고 있다.

컴팩트 장비인 스킵스티어러더(SSL)는 인도 시장 점유율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월에는 컴팩트 장비 딜러를 상대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두산밥캣이 인도 시장에 공들이는 것은 산업화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모디노믹스를 주창한 이후 지금까지 인프라 구축, 제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산밥캣에 따르면 인도 소형 건설기계 시장 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도 백호로더 시장 규모는 무려 1조 원에 달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버전 통과
 ※ 테스트버전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 1588-8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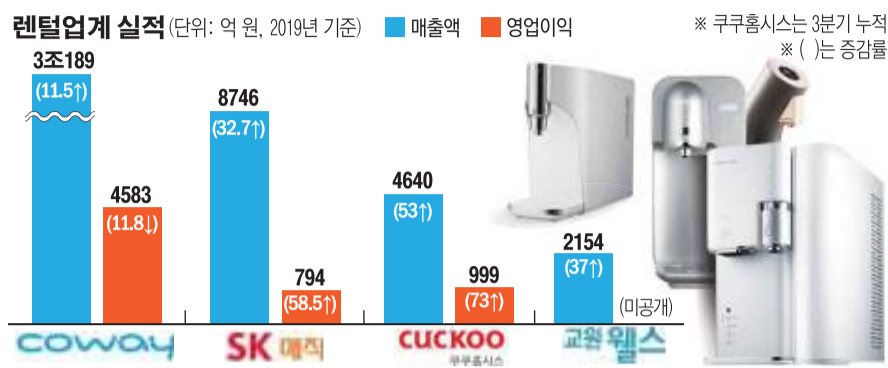



“렌탈 사업이 효자”... 쿠쿠·교원 등 모기업 ‘방긋’

SK매직, 영업의 59% 경중... SK네트웍스 성장축 자리매김
쿠쿠홈시스 호실적 힘입어... 쿠쿠 ‘1조 클럽’ 진입 확실시
웰스 렌탈사업 실적 견인... 교원 매출 1조4560억 ‘역대 최대’

렌탈 업계가 지난해 일제히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1위인 코웨이뿐 아니라 2위권 업체들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장 1위 업체인 코웨이는 지난해 매출액 3조 원을 돌파했다. 매출액은 2018년 대비 11.5% 늘어난 3조189억 원, 영업이익은 11.8% 줄어든 458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코웨이의 총계정 수는 799만으로 800만 계정을 코앞에 뒀다. 구체적으로 국내 628만, 해외 법인은 151만 계정이다. 코웨이를 가장 위협하는 업체로 꼽히는

SK매직은 지난해 매출액 8746억 원, 영업이익 794억 원으로 2018년 동기 대비 각각 32.7%, 58.5%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모회사인 SK네트웍스의 부진과 비교돼 더 돋보인다. SK네트웍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난 13조541억 원이나 영업이익은 1093억 원으로 18.1%나 감소했다. SK네트웍스는 4분기엔 영업손실 610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SK매직의 렌탈 계정은 지난해 말 기준 180만으로 2016년 SK네트웍스에 인수될 당시의 2배에 이른다. 인수 이후 최고 실



적을 경신하고 있는 SK매직은 이제 모기업의 주요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SK매직은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올해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쿠는 자회사인 렌탈 법인 쿠쿠홈시스의 성장으로 지난해 매출액 1조 원 달성이 확실시된다. 밥솥으로 유명한 쿠쿠는 쿠쿠전자를 포함한 쿠쿠홈시스와 렌탈 사업을 하는 쿠쿠홈시스의 매출액을 합쳐 지난해

초 매출액 1조 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쿠쿠는 지난해 잠정실적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나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추이로 볼 때 ‘1조 클럽’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견인한 것은 쿠쿠홈시스다. 쿠쿠홈시스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이미 2018년 한 해 매출액인 4188억 원을 넘어선 4640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53% 증가한 규모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999억 원

으로 전년 동기 577억 원에서 73% 증가했다. 쿠쿠홈시스는 올해 청정 생활 가전군 라인업을 강화하며 렌탈 시장 내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렌탈 계정 수는 국내 158만으로 해외 83만 개를 합치면 241만 계정이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정수기를 필두로 공기청정기, 비데까지 청정기능을 최적화한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장기업으로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그룹은 작년 그룹사 전체 매출이 1조4560억 원, 영업이익은 10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각각 2018년 대비 10%, 53.8% 늘어난 규모다. 그룹사 매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렌탈 브랜드인 웰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215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누적 계정은 70만을 확보했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LG U+ “갤S20 사전예약 36%가 핑크 선택”

온라인몰 가입자는 60% 이상
20·30대 여성고객에 큰 인기
SK텔레콤 ‘블루’ KT ‘레드’
전용 컬러 앞세워 마케팅 총력



LG유플러스 모델이 ‘갤럭시S20’ 클라우드 핑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삼성전자 ‘갤럭시S20’ 사전예약 판매 경쟁을 벌이는 이통 3사가 ‘컬러 마케팅’으로 특색을 보이고 있다. 전용 컬러를 부여받은 모델이 타 기종에 비해 최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어서다. 각 업체는 전용 컬러 상품의 판매량 상승을 기반으로 다음 달 6일부터 본격화되는 일반 판매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아우라 블루’, KT가 ‘아우라 레드’, LG유플러스가 ‘클라우드 핑크’ 등 전용 컬러 상품을 사전예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KT의 경우 3사 중 유일하게 블랙 핑크 제니를 홍보 모델로 가용해 눈길을 끈다. 사전예약 집계를 공개한 LG유플러스의 경우 20~21일 이틀간 예약 가입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갤럭시S20의 4가지 색상 중 전용 색상인 ‘클라우드 핑크’가 전체 예약 가입자 중 3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코스믹 그레이(28.6%), 클라우드 블루(18.2%), 클라우드 화이트(17.2%) 순이었다.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에서는 예약 가입 고객의 60.1%가 클라우드 핑크를 택해 이 같은 ‘핑크 열풍’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 중각직영점 윤범열 점장은 “갤럭시S20 시리즈에서는 핑크 색상을 찾는 고객이 특히 많다”며 “주로 20·30대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데, 부드러운 딸기 우유 색상으로 워낙 잘 나와서 남성 고객들도 예약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통 3사는 전용 컬러 마케팅을 통한 점유율 경쟁에 공들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온라인숍 T월드 다이렉트에서 갤럭시S20을 예약·구매한 고객 가운데 선착순 3000명에게 단말과 아우라 블루 에코백, 신세계상품권(3만 원)으로 구성된 ‘아우라 블루 패키지’를 제공한다. KT는 ‘제니’와 함께 SNS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레드 색상을 삼성전자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도 적용해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핑크’에 맞춰 삼성전자 공식 체험존인 S존이 입점돼 있는 400여 개 LG유플러스 매장에서 예약가입 기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딸기 음료 교환권, 핑크색 화장품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자민 기자 yes@

“美윌리엄스 소노마 제품으로 집안을 화사하게”

현대리바트 ‘홈체인징 프로젝트’

고객 추천 무료체험 이벤트



‘WSI 플래그십 스토어 논현점’에서 ‘디자인 크루’가 고객에게 홈스타일링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리바트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바트는 봄 시즌을 맞아 26일까지 미국 프리미엄 홈퍼니싱 기업 윌리엄스 소노마(WSI)의 상품으로 집을 꾸며주는 이벤트 ‘홈체인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홈체인징 프로젝트’는 WSI의 4개 브랜드(윌리엄스 소노마·포터리반·포터리반 키즈·웨스트 엘름) 상품으로 당첨된 고객들이 원하는 공간(거실·침실·자녀방 등)을 꾸며주는 이벤트다.

특히, 1등과 2등에 당첨된 3명의 고객에게는 홈스타일링 서비스 ‘디자인 크루’의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디자인 크루’는 일종의 홈스타일링 ‘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개인 쇼핑 도우미)’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기존 판매사원 중 디자인 업체나 가구 공장 등에서 근무한 이색 경력자 10여 명을 ‘디자인 크루’로 선발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상담 방법부터 색상·스타일 등 디자인, 제품을 활용한 인테리어 방법까지 미국 윌리엄스 소노마 본사의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을 거쳤다.

이벤트 참가 희망자는 26일까지 홈스타

일링을 원하는 공간의 정보(용도·면적·사진 등)를 WSI 온라인몰의 웨스트 엘름관과 포터리반 키즈관 내 이벤트 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500만 원 상당, 2등(1명)에게는 200만 원 상당의 윌리엄스 소노마 상품과 홈스타일링 서비스인 ‘디자인 크루 서비스’ 체험 기회를 각각 제공한다. 3등(5명)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윌리엄스 소노마 소품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3일이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참가자 전원에게는 윌리엄스 소노마 공식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 할인 쿠폰(5만 원 이상 구매 시)을 증정한다. 최영희 기자 che@

청호나이스 “아기 분유, 전용 정수기로 타세요”

7단계 정수 시스템으로
142개 유해물질 제거
‘KC마크’ 48개 항목 통과



BRANE, PURE, POST CARBON, UV)의 7단계 정수 시스템이다.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성능검사 결과, 국내 최초 142개 유해물질을 거르는 프리미엄 정수기다. RO 멤브레인 필터 후단에 적용된 PURE 필터는 미세한 중금속과 해로운 이온 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해 깨끗한 물을 제공한다. 여기에 UV 살균 기능을 더해 취

수 시 필터를 통과한 정수를 살균, 면역력이 약한 아기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정수기에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인증, KC마크가 부착돼 있다. KC마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정수기 품질검사를 거쳐 통과한 제품들에 부착되는 국가통합 인증마크다. ‘베이비스워터’는 일반 정수 성능 6개(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경도, 질산성질소) 항목과 특수 정수 성능 42개(수은, 납, 카드뮴, 대장균 등) 항목, 총 48개의 항목에 합격한 정수기다.

‘베이비스워터’는 정수탱크, 취수구 등 물이 닿는 부품에 환경호르몬과 중금속 19종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안전한 재질을 사용했다. 또한 분유 제조 시 원터치로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5단계로 취수량 조절이 가능하고, 냉수, 정수, 미온수, 온수로 온도 선택까지 가능하다.

이자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신청 접수

2만개 업체로 지원규모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와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올해 사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작년 1000개사를 대상으로 75억 원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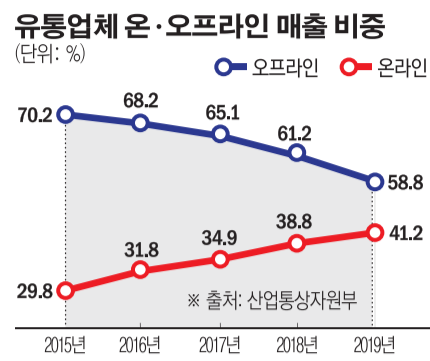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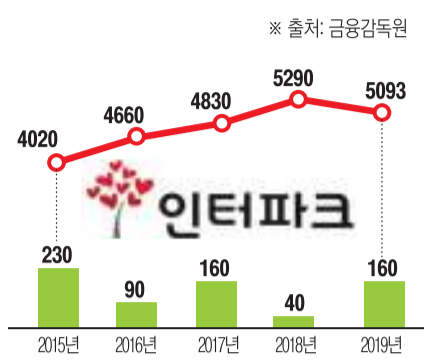
원한 대비해 올해는 지원 규모를 2만 개사로 늘렸다. 예산 규모도 328억5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중기부는 우선 상품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 및 평가팀을 구성해 소상공인의 상품성과 역량을 진단하고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역량이 충분한 소상공인 1만4500개 업체는 제품 특성에 맞는 온라인 채널에 입점을 지원한다. 상품성은 있지만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2000개 업체를 선정해 전담 셀러를 연결, 상품등록과 판매 및 홍보 등 전 과정을 대행해 줄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코로나의 역설’... 실적개선에 표정 관리하는 이커머스

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이어 11번가, 8년 만에 ‘흑자전환’ 최근 온라인 쇼핑 수요 급증 수익성 개선·고객 확보 기회 ‘제2의 쿠팡’ 목표 공세 높여



‘치킨게임’으로 치닫던 이커머스 업계에 흑자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 라이벌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베이코리아와 인터파크에 이어 11번가가 8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티몬 역시 상반기 중으로 흑자 기업에 이름을 올릴 태세다.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되면서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SK텔레콤의 영업실적을 통해 공개된 11번가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517억 원, 영업손실 36억 원이다. 그러나 4분기 적자에도 불구하고 11번가는 지난해 연간 기준 1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

두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2008년 사업을 시작한 11번가가 흑자를 달성한 것은 2011년 이후 두 번째다.

11번가 관계자는 “비록 십일절 등 연말성수기 프로모션 진행의 영향으로 4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지속적인 비효율 사업 축소와 수익성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말했다.

빠른 배송과 최저가 경쟁이 거센 이커머스 업계는 흑자 기업이 드물었다. 흑자 기업은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인터파크 정도다. 이베이는 2018년까지 무려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시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며 영업이익 역시 무난히 플러스를 기록했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파크도 2011년부터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장수 흑자 기업이다. 특히 이 회사는 온라인 쇼핑물들의 출혈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타사에 강점이 있는 엔터테인먼트와 투어, 티켓 등에 집중하면서 리스크를 줄였다. 특히 지난해 역시 연결기준 영업이익 16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성장했는데 일본 불매 운동으로 투어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거둔 실적이다.

당초 온라인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감하게 덩치를 키우거나, 무리하게 영업비를 투입하는 제 살 깎아먹기 전략을 내세웠다. 서로 비슷한 상품을 팔아서 저가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아마존처럼 승자 독식 구조가 전망돼 왔다.

하지만 하나둘씩 흑자 기업이 나오면서 예상이 깨지고 있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로는 먼저 소비 패턴의 대세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넘어가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진 점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0.9% 줄었지만, 온라인 유통업체는 14.2% 늘었다. 점유율 역시 2015년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29.8%에 불과했지만, 2016년 31.8%, 2017년 34.9%, 2018년 38.8%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1.2%로 꾸준히 오름세다.

11번가는 쿠폰과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커머스포털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티몬과 위메프는 타임마케팅에 집중하는 한편, 직매입과 당일배송을 축소하는 등 수익성 향

기기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투어와 엔터에 무게를 싣고, 마켓컬리는 꾸준한 프리미엄 신선식품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흑자 기업으로 티몬이 예상된다. 이 회사는 3월을 흑자 달성의 달로 정하고 늦어도 4-5월 중에는 적자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최근 티몬의 재무건전성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분기 90억 원 적자였던 EBITA(법인세 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3분기 마이너스 47억 원으로 줄었다. 4분기 역시 마이너스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업계에서는 이를 수익성 개선과 고객 확보의 기회로 엿보고 있다. 마켓컬리와 SSG닷컴, 현대물, 위메프 등이 너나 할 것 없이 할인과 프로모션에 나서며 공세를 높이는 이유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몸집 불리기 싸움에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사업에 집중하며 이커머스가 각자 도생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코로나19 이슈에 따른 반사이익이 예상되면서 제2의 쿠팡을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송호섭 號 출범 1년 스타벅스 순항 중

작년 매출 23% 영업이익 22% ↑ ‘외식업 경험 없다’ 우려 씻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액 경신을 이어나갔다. 스타벅스는 꾸준히 매장을 확대하며 매년 매출 기록을 새로 썼지만, 지난해 11년간 회사를 이끌던 수장이 바뀌면서 실적 순항을 이어갈지가 관심사였다.

23일 이마트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지난해 매출액 1조8696억 원, 영업이익 175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22.8%, 22.3% 증가했다.

사이렌 오더를 비롯한 IT 서비스를 강화한 것을 비롯해 매장 확대, 스페셜티 커피 리저브 판매 증가 등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다음달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송호섭 대표 체제는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014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사이렌 오더’를 개발한 후 꾸준히 편의성과 기능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사이렌 오더를 비회원 대상으로 확대 론칭했고, 드라이브스루 존 이용 시 주둔 반경도 기존 2km에서 6km로 늘렸다.

매장 확대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말 점포 수는 1378개로, 전년보다 116개 늘었다. 스타벅스는 연간 100여 개 매장 출점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인 리저브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70% 증가하며 누적 판매 600만 잔을 넘어선 것도 매출 증대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 대표 체제도 1년 만에 안정화하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송 대표가 커피 업계 경력이 짧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그가 나이키, 로레알, 언더아머 등

소비재 분야에서 20년간 경험을 쌓은 글로벌 전문가이지만, 외식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그러나 송 대표는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하듯 취임 첫해 만족할 만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세간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했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송 대표는 최근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방탄소년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음료와 푸드, MD상품 등을 출시하며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스타벅스는 이 캠페인을 통한 판매 수익금 일부로 기금을 조성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청년 자립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송 대표는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력이 이번엔 스타벅스를 통해 많은 고객에게 전달돼 대한민국 청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고당도 프리미엄 감귤 '제리한'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천호점·신촌점·목동점·충정점·판교점 등 전국 6개 점포 식품관에서 고당도 프리미엄 감귤 '제리한(韓)'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감귤은 '우리나라 최고의 감귤'을 선보이자는 취지로 평균 당도 13.5브릭스 이상, 산도 1% 이하의 상품을 비파피 당도선별기를 통해 선별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이마트24, 민생라면 이어 '민생짜장'

1봉지 650원, 30% 이상 저렴



이마트24가 390원 민생라면에 이어 짜장라면(사진)을 내놨다. 민생짜장라면은 1봉지에 650원으로, 기존 인기 짜장라면 대비 30% 이상 저렴하다. 가격은 대폭 낮췄지만, 짜장 소스의 깊은 맛과 풍미는 살렸다.

민생짜장라면은 깊은 진한 춘장맛과 볶음양파 분말과 볶음양파조미유 성분을 포함해 소스에서 진한 볶음양파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3월부터 국물이 없는 라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민생짜장라면이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24가 2019년 겨울(12-2월) 대비 봄(3-5월) 봉지라면 매출 증가율을 확인한 결과, 국물라면은 2% 소폭 증가한 반면, 짜장라면, 비빔라면 매출은 23%로 큰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24는 고객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민생시리즈의 첫 상품으로 민생라면을 선보였다. 민생라면은 2019년 2

월 390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 개수 700만 개를 돌파, 명실상부한 이마트24의 대표상품이다.

이후 민생컵라면, 도시락김, 쓴씨피·단커피, 감자칩 등 일반식품뿐 아니라 황사 마스크, 롤휴지, 미용티슈, 물티슈 등 비식품까지 초저가 상품으로 선보였다. 민생시리즈는 각 카테고리에서 판매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은경 이마트24 일반식품팀 바이어는 “이번 상품으로 편의점 PB상품이 맛과 품질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차별화한 PB상품 개발을 통해, 가맹점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바람 탄 '라면 한류'... 비빔면·불닭시리즈 '진격'

라인업 늘리며 세계 무대 경쟁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로 한국 라면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 라면은 수출 효자상품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라면의 원조로 불리는 일본 라면에 밀린 2인자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수상을 계기로 한국 라면의 위상까지 높아지고 있다. 농심은 짜파구리를 정식 제품으로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생충’의 낭보로 농심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거머쥐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불닭시리즈와 짜파구리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국 라면도 안방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체제가 한창이다. 이들은 기존 스테

디셀러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팔도는 ‘비빔면’에 크림분말스프를 더한 ‘팔도BB크림면(이하 BB크림면)’을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지난해 ‘팔도네넬면’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한 데 이어 두 번째 확장판을 내놓은 것이다.

‘BB크림면’은 매콤한 비빔장과 고소한 크림을 더한 소스가 특징이다. 팔도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최근 신제품 M 퍼펙트 비비 크림을 내놓은 에이블씨엔씨 ‘미샤’와 손잡고, 온라인몰 ‘11번가’를 통해 기획세트도 판매하고 있다.

심양식품의 불닭시리즈는 가장 많은 라인업을 갖춘 브랜드다. 2012년 4월 출시한 불닭볶음면은 스낵, 소스 등 총 20종의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삼양식품의 매



팔도BB크림면

출은 2018년 4693억 원, 지난해 5400억 원까지 증가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라면이 과거에는 기호성이 크게 높지 않은 저관여상품으로 분류됐지만 점차 고관여상품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신제품보다는 익숙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코로나19’ 전방위 공습... 제약·바이오만 웃었다

소비위축으로 섬유·의복 주가 한 달 새 13% ↓
매장 휴업 등 유통업 타격 롯데쇼핑 22% 하락
백신·치료제 개발 기대 제약·바이오 2.6% 상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 하면서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제약·바이오투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한 달 새 크게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전월(1월 20일) 대비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은 제약·바이오(2.6%)가 유일하다. 반면 나머지 업종은 평균 6.34%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업종 전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섬유·의복(-13.18%), 은행(-11.93%), 증권(-10.22%), 보험(-10.16%), 금융업(-9.92%), 철강금속(-9.26%), 건설업(-9.23%), 비금속광물(-8.13%), 유통업(-7.54%), 기계(-7.44%), 의료정밀(-5.99%), 운수장고업(-5.27%), 화학(-4.71%), 통신업(-4.6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방경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조사기관 팩셋에 따르면 소재와 자요소

코스피 업종별 지수 추이

구분	1월 20일	2월 21일	증감률(%)
섬유·의복	283.84	246.43	-13.18
은행	235.26	207.19	-11.93
증권	1,733.64	1,556.42	-10.22
철강금속	3,741.55	3,395.02	-9.26
의약품	10,806.40	11,086.86	2.60

※출처: 한국거래소

비재, IT,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 언급 빈도가 높았다”며 “이들은 지역별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S&P(스탠다드앤amp;푸어스) 업종가별 실적 추정치를 살펴보면 해당 업종의 타격이 컸

다”고 덧붙였다.

유통업의 경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주요 매장의 임시 휴업과 해외 입출국객 감소 및 중국 소비 위축으로 크게 위축됐다. 화학업종도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 중국 석유제품 수요 감소에 따른 아시아 지역 공급 과잉으로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바이오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랐다.

종목별로는 체시스(-36.99%), 한올바이오(-29.29%), 현대건설기계(-28.55%), 금호전기(-28.1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유통업인 롯데쇼핑(-22.30%), 신세계인터내셔널(-21.78%), 롯데하이마트(-19.34%), 현

대백화점(-16.18%) 등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반면 제약·바이오 업종인 신풍제약은 같은 기간 175.08% 급등했다. 오리엔트바이오도 115.97%, 진원생명과학(54.83%), 신풍제약(26.05%), 국제약품(25.74%) 등도 크게 상승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 의존도와 글로벌 밸류체인(GVC)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 충격의 파급 영향이 클 수 있다”며 “공급망 연결 등 중국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운송장비, 광학기기, 화학 업종의 불황은 국내 산업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계열사 정리’ 사업기반 약화에 손실 확대

한계기업 돋보이기

금호전기

금호전기가 작년에도 영업손실을 내면서 9년째 ‘한계기업’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계열사의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등 사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금호전기는 지난해 연결기준 9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가 지속됐다. 같은 기간 매출은 623억 원으로 0.8% 감소했고 순손실은 329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늘었다.

회사 측은 “금호에이엠티의 영업활동 중단과 폐업, 심전법인 BLU(백라이트유닛) 사업부문의 생산 및 판매 중단과 동관법인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전기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늪에 빠졌다.

금호전기는 ‘번개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조명 제품 생산·판매업체다. 1935년 설립했으며 1973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직관·환형 전구·형광램프, LED 조명, BLU,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모두 LED 또는 형광램프를 기반으로 해 사업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편이다.

금호전기 주요 지표 추이(연결기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1014억 원	773억 원	623억 원
영업이익	0억 원	-478억 원	-91억 원
순이익	-202억 원	-209억 원	-329억 원
부채비율	196.5%	390.9%	341.3%

형광램프 사양화로 매출 감소

작년 순손실 329억 적자 확대

부채비율 341%... 신용등급 ‘B’

금호전기는 2010년 이자보상배율 2.30을 마지막으로 1배 미만이거나 영업손실에 따른 산정 불가로 한계기업에 속한다. 본격적인 적자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2014년과 2016년 일시 영업이익을 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특히 2017년부터는 주력 제품이었던 형광램프의 사양화로 따른 매출 감소, 공급자 난립에 의한 높은 경쟁 강도 등으로 LED 조명 평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손실이 지속됐다. 2018년은 종속법인의 재고자산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로 무려 478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금호전기는 2015년 이후 적극적으로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2018년에는 용인공장 매각과 루미마이크로, 금호에이치티 등 계열사 지

분을 팔아 순차입금을 줄였다. 그럼에도 영업손실 확대와 중국 등 해외 생산설비 감액에 따른 순손실로 재무 레버리지 지표가 악화됐다.

부채비율은 2017년 196.5%에서 이듬해 390.9%로 늘었고 차입금의존도 역시 54.1%에서 60.4%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감자비율 90%의 자본감소로 결손금을 보전했음에도 300억 원대 순손실로 작년 기준 부채비율은 341.3%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신용평가사들은 금호전기가 자산 매각 및 지분정리에도 재무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평가한다. 미흡한 영업 실적과 높은 경쟁 강도 등을 고려하면 내부 현금창출력에 의한 재무안정성 개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이 때문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은 금호전기의 신용등급을 ‘B’로 규정하고 있다. B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돼 투기적이며 불황 시에 이자 지급이 확실하지 않음을 뜻한다.

한편 금호전기는 LED를 활용한 피부미용기, 두피관리기 등의 헬스케어를 비롯해 IoT(사물인터넷)와 접목한 스마트 조명 사업을 확대하고 LED 가로등, 골프장 조명 등 수주 기반의 특수조명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적 부진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TRS 대출 3사, 자금회수 강행

‘라임發 증권사 분쟁’ 법정 공방 예고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자금을 대출해준 증권사들이 펀드 고객들보다 먼저 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대신증권의 요구를 일축하고 회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라임 환매중단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이들 3개 TRS 계약 증권사와 판매사 간 자금 회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3사는 12일 대신증권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검토한 끝에 회신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검토 결과 대신증권의 주장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내용증명에 답변할 만한 내용이 없어 회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TRS 계약은 라임자산운용과 맺었을 뿐 판매사와는 무관하다”며 “고객의 투자금을 지키려는 대신증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으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3사가 대신증권의 요구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법적 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대신증권은 3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보다 먼저 TRS 정산분배금 지급을 청구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이를 거절해 자사 고객들에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

을 묻겠다는 내용도 내용증명에 담겼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3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금을 회수하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고, 소송 전 단계로 재산 보존 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시간을 두고 (3사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TRS는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실상의 대출로, 증권사는 펀드 만기 때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며 투자자들은 나머지 대금을 분배받는다. 자산운용사는 TRS를 이용하면 펀드 설정액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되는 만큼 더 큰 이익을 노릴 수 있지만,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설정액 100억 원인 펀드에 10%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설정액만 투자했다면 손실액은 10억 원이 되지만, TRS 계약을 맺어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면 손실액은 20억 원이 되며 이는 모두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 펀드들을 운용하면서 TRS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업평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모(母)펀드 4개와 모펀드에 투자한 자(子)펀드들에 맺은 TRS 계약 금액은 총 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우리 기자 we1228@

“종합방송 플랫폼으로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추진”

기업 주식 담당자

주담과 Q&A

더이앤엠

더이앤엠이 올해 글로벌 종합방송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더이앤엠은 온라인 라이브방송플랫폼 구축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2위 규모의 개인방송 플랫폼 팝콘TV를 서비스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BJ 매니지먼트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계열사 아이씨엔터테인먼트가 수익성 확대 기반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또 베트남 등 해외로 라이브방송 플랫폼 수출을 통한 확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업 전망은?

“팝콘TV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5월 설립된 MCN 아이씨엔터테인먼트를 활용해 수익을 증대할 예정이다. 팝콘TV는 유튜브 등 타 플랫폼 방송자를 영입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며, 또 다른 플랫폼 진출도 지원함에 따라 수익률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비성인 개인방송 플랫폼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방송자들을 활용한 트래픽 유입 및 광고매출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한다.”

-주력 사업은?

“팝콘TV는 건전한 성인방송을 표방하는 실시간 개인방송 플랫폼이다.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소비되는 방송형 커뮤니티 서비스다. 일평균 방송 수는 4000여 개다. 성인방송 플랫폼으로는 방송자 수, 방송 수, 발생 매출 면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다.

누적 가입자 수는 2017년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183만 명이 이른다. 월간 순방문자 수(MAU)는 40만 명에 이른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94.1%, 영업이익은 27% 성장했다.”

-해외 사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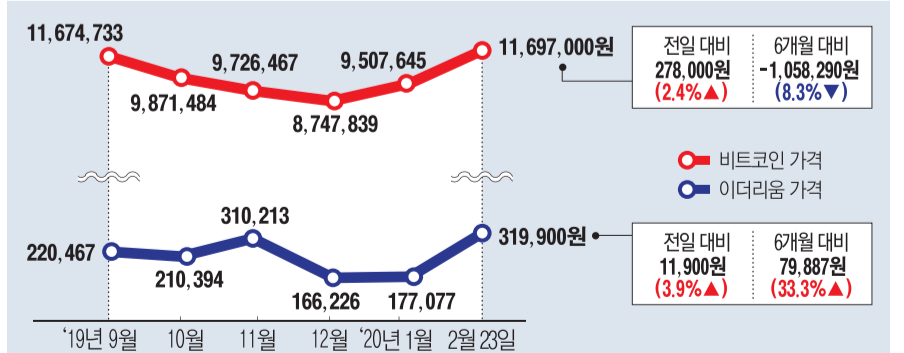
“당사는 우수한 라이브방송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1월 아시아 최대 인플루언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YEAH1 그룹과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JV) 설립계약을 체결했다. 더이앤엠은 라이브방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YEAH1은 다양한 로컬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상반기 중 서비스될 전망이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등 다른 동남아 라이브방송 콘텐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종민 기자 jim@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0년 2월 23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463,300	22,100 (5.0%▲)	모네로	97,250	-500 (0.5%▼)
리플	333	10 (3.1%▲)	비트코인골드	12,520	540 (4.5%▲)
라이트코인	92,900	4,950 (5.6%▲)	이더리움클래시	11,610	430 (3.8%▲)
대시	127,800	1,000 (0.8%▲)	퀀텀	2,911	99 (3.5%▲)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담담한 안양·당황한 의왕·아쉬운 수원 '3색 표정'

조정대상지역 편입 3곳

- 안양**
집값 2배 넘게 올라... "예상한 일"
- 의왕**
"성남 아닌 우리가?" 계약 파기도
- 수원**
"지금이 오를 때" 호가 조정 없어

2·20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 신규 조정 대상지역: 수원 영통, 권선,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
- 조정대상지역 내 주요 규제 내용

현행	개선
- 주택가격 구간 없이 LTV 60%, DTI 50%	- LTV 50%(9억 원 초과분은 30%), DTI 50%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 '기존 주택 2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제? 여긴 워낙 저평가된 데다 교통 호재까지 있어 오를 일만 남았다." (수원 영통구 D공인.)

"의왕 전체 규제는 전혀 예상 못해 당혹스럽다. 잔금 시기 앞당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줄을 잇는다." (의왕 포일동 Q공인.)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경기도 3개 지역의 표정이 저마다 제각각이다. 안양 일대는 그동안 집값이 너무 뛰어서 조정지역 지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반면 의왕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은 일시적으로 판매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뜨겁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지적 풍선효과에 핀셋 대응에 나선 만큼 단계적으로 집값 오름세는 진정되겠지만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랑곳 없는 수원 영통·장안·권선구 = 수원은 2018년부터 팔달구와 광교지구가 이미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2·20 대책으로 영통·권선·장안구가 모조리 추가되면서 수원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오르는 현상)에 교통망 개발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영통구의 12·16 대책 이후 누적상승률은 무려 8.34%에 달했다.

그러나 수원은 이번 대책에 크게 동요하

지 않는 분위기다. 영통구 영동동 청명마을 대우아파트 99.87㎡의 실거래가는 올해 들어 7억7000만 원(2월)까지 올랐지만 현재 호가(주인이 부르는 값)는 이보다 무려 5000만 원 높다. 이 일대에서 6월 수원 영흥공원푸르지오(152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 기대감에 공원 개발, 인덕원~동탄선을 잇는 교통망 개발까지 더해지면서 "지금이 오를 타이밍"이라는 인식이 퍼질 만큼 퍼졌다. 이는 현장 공인중개소들의 설명이다.

D공인 측은 "대책에도 별다른 반응은 없다"며 "오히려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고, 개발 호재가 워낙 많아 오를 일만 남았다는 게 주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신분당선과 인동선(인덕원~동탄)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장안구나 신분당선, 수인선(수원~인천) 호재가 긴 권선구 역시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다르지 않았다. 호가 조정에 나서는 매도자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안양 만안구 "예상한 일"... 의왕 "당혹" = 안양은 조정지역 편입이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만안구 안양동 O공인 측은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조정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다"며 "그동안 매도자 우위였다면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는 의왕이 가장 극심했다. 의왕은 이달 포일동 '인덕원 푸르지오 엘리트'로 전용 84

㎡ 분양권이 11억9000만 원에 팔렸다. 6억 원을 밀들었던 분양가보다 2배 넘게 오를 만큼 집값이 크게 뛴 곳이다.

의왕에선 치솟는 집값에 규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이 많았지만 의왕시 전체가 규제로 묶인 건 당혹스럽다고 현지 중개소들은 전했다. 중개소엔 새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내손동에선 이미 계약을 진행 중인 거래가 파기되는 일도 발생했다.

내손동 D공인 측은 "성남, 용인이 아닌 의왕, 안양이 들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며 "안양 동안구처럼 조정지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집값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왜?'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에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는 만큼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져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몇 달 새 수억 원이 치솟는 급등세는 진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낮은 금리와 넘치는 유동성, 계속된 규제의 내성 등으로 집값이 하락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봤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수요 억제책은 일시적으로 수요심리를 누를 순 있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박종화 기자 pbell@

사실상 '전매금지' 수원... 과열 꺾이나

올 9곳서 1만1498가구 분양
입주 전까지 분양권 못 팔아
"실수요자 중심 시장 바뀔 것"

지역	아파트	총가구수	분양시기
장안구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	666	3월
장안구	수원대우경기지구(2블록)	665	5월
영통구	수원영흥공원푸르지오	1,520	6월
장안구	수원시퍼장동	1,000	6월
영통구	수원망포2차(4,5블록)	1,418	9월
팔달구	수원팔달10구역(115-9구역)	3,432	10월
팔달구	지동재개발(115-10구역)	1,154	10월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930	미정
영통구	영통자이	663	미정

※출처: 부동산114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도 수원 전역의 전매제한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이 일대의 폭발적인 청약 열기는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는 올해 9곳, 총 1만149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내달 나오는 장안구 조원동 광교산더샵퍼스트파크(666가구)를 비롯해 △영통구 수원영흥공원 푸르지오(1520가구) △팔달구 팔달10구역 재개발(3432가구) △팔달구 지동재개발(1154가구) △권선구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930가구) 등이다. 장안구와 영통구에 각각 3곳, 팔달구 2곳, 권선구 1곳 등 수원 전역에서 골고루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앞서 수원에선 규제 전에 막차를 타려는 예비 청약자들이 청약 대란이 벌어졌다.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074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15만650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145.72대 1을 기록했다. 수원에서 나온 역대 최대 청약 신청 기록이다.

이달 초에 진행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무순위 청약은 42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6만7965명이 몰렸다. 접속자 폭주에 청약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2·20 대책을 기점으로 이 같은 청약 과열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늘렸기 때문이다. 입주 전까지 분양권을 더 이상 사고 팔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난주 분양시장을 달군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애초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세제 규제를 받았지만, 6개월 뒤엔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린 단기 투기 수요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조정지역은 전매금지로 사실상 가수요의 진입이 막혀 앞으로 단기 투기 수요는 감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뀔 것"이라며 "다만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인데도 경쟁이 치열하듯 수원 역시 실수요자 간 경쟁은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기업 PR>

대림산업, 한남3구역 재입찰 출사표

대림산업이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하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출사표를 던졌다. 상품 가치 제고는 물론 준법 수주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박상신 대림산업 주택사업본부장은 23일 "영업활동에서부터 입찰 내용·시공·입주 이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해 한남3구역 수주에 나설 것"이라며 "고객이 바꿀 수 없는 주거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한 상품 구성, 입주 이후

하이엔드 브랜드로서의 자부심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단지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 27일까지 재입찰 접수를 한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4월 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연다. 시공사 선정일은 4월 26일이다.

특히 박 본부장은 준법 수주를 강조했

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열 또는 불법 행위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다"면서 "대림산업은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조합원들에게 더는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진정한 준법 수주'에 앞장서고, 최상의 상품 제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나무보다는 숲을 생각하며 항상 더 큰 미래가치를 위해 달려온 대림의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한남3구역 수주전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해 준법 수주의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감사 결과 이달 나온다

감사원, 실태·문제점 분석
5월 본격 시행 앞두고 관심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중에 국토해양2과가 담당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처리 단계는 '감사보고서 시행 및 공개 준비'다. 다만 공개 범위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개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

감사원은 작년 6월 26일부터 7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을 주요 대상 기관으로 삼고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기간 당시 감사원의 실지감사를 통보받은 곳은 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 중랑·송파구, 경기도 고양·남양주·성남시·하남·화성시, 세종시 등으로 파악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4월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5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만큼 감사 결과와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작년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주택 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갑작스러운 제도에 걸림돌을 잡지 못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작년 10월에서 올해 4월로 유예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두 달여 후에 시행하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참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초구청도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물레이션을 했으나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 강남권에서 정비사업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초구청은 서초구 내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실시했다.

서초구청 측은 시물레이션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참고자료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정비사업 A조합장은 "서초구 내에서 재건축 준비 조합이 60개가 넘는데 시물레이션 자료가 있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2월 넷째 주엔 4100여가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에서 총 14개 단지,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등이 청약 받는다.

7개 단지에선 다음 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전동아루미체,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SK뷰,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영도해안루미체,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 SK뷰, 부산 영도구 대교동1가 영도해안루미체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5곳이다.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1신혼희망타운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날짜	구분	시	구/군	읍/면/동	아파트명	입주	
2/24 (월)	접수	전남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뷰그리안 1순위	2/26 (수)
			경북	안동시	봉곡동	경북도산도시로오름해례곡공영대1순위	
			충남	나주시	빛가람동	스카이센트럴	
			경북	장성군	삼계면	장성삼계(영구임대) (~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1순위	
2/25 (화)	계약	오른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1신혼희망타운공영대 (~2/28)	2/27 (목)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뷰그리안 2순위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경북	안동시	봉곡동	경북도산도시로오름해례곡공영대 2순위	
2/26 (수)	발표	전남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2/28 (금)
			경북	안동시	봉곡동	경북도산도시로오름해례곡공영대 2순위	
			충남	금산군	금산읍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2순위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전동아루미체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2/27 (목)	계약	오른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1신혼희망타운공영대 (~2/28)	2/28 (금)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뷰그리안 2순위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경북	안동시	봉곡동	경북도산도시로오름해례곡공영대 2순위	
2/28 (금)	계약	오른	경기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A1신혼희망타운공영대 (~2/28)	2/28 (금)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뷰그리안 2순위	
			부산	영도구	매곡동	영도해안루미체	
			경북	안동시	봉곡동	경북도산도시로오름해례곡공영대 2순위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저성과자 해고’ 회사에 입증 책임

법원 “담당업무 이행 불가능 증명 못하면 부당 해고로 봐야”

현대자동차가 해고 사유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저성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A 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는 2004년 주 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이 취업규칙을 근거로 26년째 근무해온 과장급 간부사원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사측은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최하위의 인사평가를 받았다”며 “업무 역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통상해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는 2018년 6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절차적 적법에도 불구하고 무효”라며 인용했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자체가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으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도 받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대차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참가인에게 그 평가에 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

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며 “따라서 근로자 집단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담당 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저성과자이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현대차가 부당한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과도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공인회계사 시험 예정대로 제55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이 열린 23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시험장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의 통제하에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뉴스스

서울시, 지하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 임대료 8월까지 납부 유예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한다.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 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 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화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 상가이며 대상 점포 수는 1761개소이다.

서울시는 관리비 항목 중, 경비·정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

된다. 또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 상가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하도 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목적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14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법원 “인터넷 가입 선물로 준 상품권도 부가세 대상”

LG U+, 385억 환급소송 패소 “유통성 달라 ‘현금 할인’ 아니다”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은 ‘예누리액’ (할인액)으로 볼 수 없어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385억 원의 환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납부한 인터넷 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다

상품권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예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낸 부가세 중 상품권 금액만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부가세법은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예누리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서 제외한다.

이에 LG유플러스가 고객에게 준 상품권이 ‘현금의 가치’가 있어 인터넷 요금을 직접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사용 범위와 조건이 제한돼 유통성이 현금과 다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해 현금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품권은 가입 유인을 위해 부수적으로 제공한다는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며 “고객으로서는 상품권을 받아도 인터넷 요금은 전액 지급하는데 이는 인터넷 상품 매출 감소 항목이 아닌 별도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TV에 게재됐습니다

재미 공감 위로

BRAVO My Life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챔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챔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챔 TV)

'코로나19' 여파 1200원 돌파한 환율, 어디까지...



김남현의 **일가일부**

외환시장 전문가 분석

원·달러 환율이 주요 저지선으로 인식됐던 1200원을 돌파했다. 상승속도도 가파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강세가 벌어지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급증까지 겹치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외환당국의 환시개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 원인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도 조정국면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에 변화가 있더라도 수급 여건상 급락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10.5원(0.88%) 상승한 1209.2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감가가 장중 최고가로 이는 지난해 9월4일(종가 기준 1208.2원, 장중기준 1212.3원) 이후 최고치다. 하루 상승폭도 작년 8월5일(17.3원·1.44%) 이후 가장 컸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종가(1168.7원)와 비교하면 40.5원(3.47%) 급등한 셈이다. 이같은 상승세는 원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같은날 역외 달러·위안(CNH)도 7.0426위안을 기록해 작년 12월5일 7.0455위안 이후 2개월보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같은 상승세는 우선 달러화 강세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의 평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달러인덱스는 같은날 99.2811을 나타냈다. 20일에는 99.6914를 기록해 2017년 4월21일(99.9702)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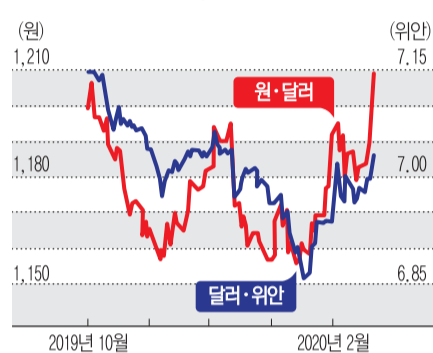
코스피가 32.66포인트 하락해 2162.84로 장을 마감한 21일 서울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이 오르며 1209.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확진자 증가 발표 때마다
위험자산 회피, 안전선호 뚜렷
위안화·달러인덱스 상승 영향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 있어
작년 고점인 1223원 넘을 수도**

미국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발표된 미연준(Fed)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미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현재 기조가 당분간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성장률이 0.6%를 기록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유로존 경제부진을 주도하고 있다. 그나마 21일(현지시각 기준) 유로지역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부진하다는게 대체적 시각이다. 유로존은 49.1, 독일은 47.8, 영국은 51.9를 기록해 각각 예상치(47.5, 44.8, 49.7)를 웃돌았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

원·달러 vs 달러·위안 환율



원·달러 vs 달러인덱스



가 강하게 오르는 바람에 원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들이 모두 약했다. 이같은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며칠간 원·달러 환율 급등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때문이란 분석이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은 "특이했던 동향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확진자수가 100여명씩 늘면서부터 나타났다. 확진자수 증가가 발표될 때마다 원화와 함께 위안화 등 위험자산 환율이 같이 반응했다. 코로나19 사태 진정여부를 한국과 연계해 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한국 상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 얼마 오를까? 대응 방안은? = 전문가

들은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원·달러가 1200원을 넘어 서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보는데다, 달러화 강세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도 가파른 위안화 상승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 상황은 원·달러가 1200원을 넘어가면서 웬만큼 반영했다.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한 상황이라 중국 당국도 위안화의 가파른 상승을 용인하기엔 자본이탈과 미국의 시선이 걸린다"며 "국내 외환당국도 예전처럼 특정 레벨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오를수 있는 변수가 있을때 길을 터줬다가 다시 민감한 레벨에 오면 움직이는 모습이다."

사태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작년 고점인 1223원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때 위안화도 7.2위안으로 고점이었다"고 전망했다.

안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여파는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라 달러화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런 달러화가 주말사이 반락하면서 숨고르기를 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환율시장의 메인 통화인 달러화가 기술적 저항선에 부딪혔다. 원·달러도 1200원이면 충분히 위험을 반영한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만해도 코로나19에 따른 위험회피 안전선호 현상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상황이 반전되더라도 원·달러가 급격히 하락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 센터장은 "외환 수급적으로도 1-2월은 달러 공급 비수기다. 통상 1-2월 부진하다 3-4월부터 늘어나는 수출이 중국 영향으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4월엔 배당 시즌이다. 최근 외화예금도 줄고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원·달러가 빠르게 하락압력을 받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 상황을 환율시장에 국한해 접근하긴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상황이 장기화하면 생산과 수출 등 여러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와 경상수지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연결되며 큰 영향을 미친다. 환율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대책이나 시장 개입을 통해 과도한 변동성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일시적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해 직장 감염 등으로 번지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보다도 코로나19 사태를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당국이) 강력한 안정대책 필요성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뱀캣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 큰 투자 '퀀텀 점프' 노린다

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이 아니더라도 주요기업의 위기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시작되면서 이들에게 의존해온 우리나라 수출도 위기에 빠졌다. 여기에 수출규제로 시작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겹쳤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지난해 1~7월 기준,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 수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 10대 수출국 대부분이 감소 추세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부진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보이지 않는 장벽(Wall)' 건설로 이어지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 변화가 주요 국가의 통상환경까지 악화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계 주요 기업은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나섰다. 나아가 기술 차별화와 혁신을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신성장 동력'을 앞세워 불확실성과 위기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2020년을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은 재계 주요 기업의 위기 극복 전략을 한곳에 모았다.

하만 '전장'·지랩스 '5G' 앞세워 시장 개척

SAMSUNG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과 파트너사 투자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전장사업은 2016년 인수한 미국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계기로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삼성전자가 선보인 차량용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은 하만 인수 후 처음으로 공동 개발한 첫 결실이다.

올해 CES에서는 삼성의 자동차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 칩셋을 탑재해 차량 내 8개의 디스플레이와 8개의 카메라를 효율적으로 구동하고 안전 운행과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경험을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3억 달러 규모의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Samsung Automotive Innovation Fund)'도 조성, 자율주행 부문에서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토모티브 혁신 펀드'는 스마트 센서, 머신 비전, 인공지능, 커넥티비티 솔루션, 보안 등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지랩스를 인수했다. 지랩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삼성전자 모델이 올해 1월 열린 CES 2020에서 차량용 '디지털 콕핏 2020'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상태, 성능, 데이터 트래픽 등을 서비스별로 분석해 품질을 측정하고 네트워크 운영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 지난달에는 미국의 이동통신 망 설계·최적화 전문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즈 지분 100%를 인수했다.

삼성전자는 또 SVIC 신기술투자조합을 신규 설립하며, 차세대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SVIC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폴더블폰용 초박형 강화유리인 UTG(Ultra Thin Glass)를 개발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UTG 상용화에 성공했다.

국제 환경규제 대응 '탈황설비' 본격 가동



SK그룹이 2020년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맞서 신성장동력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최근 금호석유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인수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PR) 소재 시장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7일에는 이사회를 열어 금호석유화학 전자소재 사업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계약도 체결했다. SK머티리얼즈는 이번 진출을 통해 특수가스 중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소재 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반도체 종합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SK에너지는 지난달 31일 감압전사유 탈황설비(VRDS)의 기계적 준공을 했다. VRDS란 감압증류공정의 감압전사유(VR)를 원료로 경질유·저유황유를 생산하는 설비다. 올해 시행된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IMO 2020)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 VRDS는 이르면 3월 말 상업생산에 들어갈 전망이다 본격 가동하게 되면 일 4만 배럴의 저유황유를 생산·공급해 매년 2000억~300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 '메모리



SK에너지 감압전사유 탈황설비(VRDS) 모습. 사진제공 SK그룹

중심의 세상(Memory Centric World)'을 주제로 참가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다. SK하이닉스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쓰이는 미래도시를 형성화하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 등 6개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솔루션을 전시했다.

5G, AI 등 미래 4차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HBM2E, 서버용 DDR5, SSD 등 메모리 솔루션과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내구성 높은 LPDDR4X, eMMC 5.1 등이다. 또, 5G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LPDDR5와 UFS, AR·VR와 IoT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CIS(CMOS 이미지센서) 등도 전시했다.

탄소섬유 '1兆 투자' 연간 2.4만톤 생산

HYOSUNG

효성이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독자기술 개발을 토대로 올해에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효성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연산 2만4000톤(t)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현재 연산 2000t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2월 중 연산 2000t 규모의 라인 증설 완료를 앞두고 있다.

효성이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는 철과 비교하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다. 내부식성, 전도성, 내열성이 뛰어나고 철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산업에 적용 가능하다.

효성은 NF3, 폴리케톤 등 고부가가치 신소재 연구에도 지속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폴리케톤은 효성화학이 세계 최초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다.

효성은 중국 취저우에 NF3(삼불화질소) 공장을 2016년 준공한 뒤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NF3는 각종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LCD, 태양전지 제조공정 등에서 이물질의 세척에 쓰이는 기체다.

효성티앤씨는 지난해 9월 연간 1만8000t의 스판텍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인도 스판텍스 공장을 본격적으로



효성이 생산하는 탄소섬유. 사진제공 효성그룹

로 가동하면서 인도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효성 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미쓰비시의 초고압변압기 공장을 4650만 달러(약 500억 원)에 인수, 약 2조 원 규모의 미국 전력시장을 공략한다. 효성첨단소재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로컬 고객 공략에 집중한다. 베트남 중부 팜남성에 신규 타이어코드 설비를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

효성화학 역시 동남아 지역 폴리프로필렌(PP) 수요 확대에 따라 베트남 남부 바리야붕따우성에 PP 원료인 액화석유가스(LPG)저장탱크 및 PP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있다.

3세대 전기차 공략... '세계 전지 1위' 수성

LG화학

LG화학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톱5 화학기업'으로 도약할 방침이다. 2024년까지 매출액 59조 원,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를 달성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LG화학은 올해를 '실행의 해(The Year of Execution)'로 선포하고 △시장과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강화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 △자산 효율성 및 업무혁신 표준화 △지속가능성 강화 △글로벌 화학기업에 걸맞은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다.

LG화학은 기술 차별화 제품 확대 및 기초원료 내재화를 위해 총 2조6000억 원을 투자해 여수 NCC(나프타크래커) 및 고부가PO(폴리올레핀)를 각 80만 톤 증설하고 내년 양산할 계획이다. 또한, 엘라스톰머(Elastomer), 메탈로센계 고부가 PO(Polyolefin) 등 기술 차별화 매출 비중을 2022년까지 전체의 2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지부문은 가격 경쟁력을 비롯한 생산 및 품질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시장 선두 지위를 강화한다. 특히 자동차 전지 사업에서 3세대 전기차(1회 충전 주행 500km 이상)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공략해 확실한



LG화학 오창 전기차배터리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 LG화학

1위를 수성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말까지 배터리 생산 능력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 기준 170만 대(100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ESS전지는 차별화된 성능과 원가경쟁력을 겸비한 시장선도 제품 개발 및 확대에 집중하고, 소형전지는 최신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혁신제품과 전동공구, 청소기 등 신시장 중심의 사업 확대로 사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첨단소재 부문은 자동차 관련 고강도 경량소재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IT소재 사업에서 TV용 대형 OLED 봉지필름, 모바일용 중소형 OLED 공정용 보호필름을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폴더블·롤러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에 나선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 친환경차로 극복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2년 연속 감소한 가운데 SUV 전차종을 포함한 친환경차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 7개 지역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6203만8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전기차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자동차 시장의 위기를 '친환경 전기차'로 극복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에 따르면 세계 전차 시장 규모는 2016년 44만6000여 대에서 2018년 119만8000여 대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는 1만3817대에서 6만1697대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전기차 수출 물량(국내 생산·도매 기준)은 전년(2만7798대) 대비 128.1% 증가한 6만3414대를 기록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친환경차 기술력도 전체적인 수출 증가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산 친환경차 수출이 이처럼 확대된 이유는 경

쟁력을 갖춘 신차들이 투입된 데다 현대·기아차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판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1분기 쏘울 EV 신차를 글로벌 시장에 처음 선보였으며, 현대차는 코나 하이브리드 2분기에 새롭게 수출 차종으로 투입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에도 전차종을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4세대 쏘렌토에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되는 등 중형 SUV 차급까지 확대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국산 친환경차 경쟁력이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사진제공 현대차

세계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유럽 및 북미권역을 중심으로 수출을 큰 폭으로 확대함으로써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AI·OLED·배터리 '주도권' 확보 가속



LG는 프리미엄 가전,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사업에서 고객 가치 극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먼저 LG전자는 AI, 빅데이터, 로봇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국내외 투자를 지속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수익 기반의 성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양대 핵심 사업인 가전과 TV의 외형 성장과 해외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글로벌 생산지 혁신과 함께 초프리미엄 가전 LG시그니처(LG SIGNATURE), 초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SIGNATUR KITCHEN SUITE)' 등과 같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일 계획이다.

TV의 경우, 미국 CTA 8K UHD 인증을 받은 리얼 8K TV를 앞세워 초고해상도 TV 라인업을 대폭 늘린다. 또 OLED TV의 강점을 활용한 롤러블, 월페이퍼 등 혁신 디자인의 TV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로봇은 상업용에서 가정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선보인 LG전자 롤러블 TV. 사진제공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OLED로의 사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대형 OLED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중소형 P-OLED(플라스틱 OLED)사업의 근본적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등 3대 사업 핵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글로벌 리딩 화학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톱' 화학회사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LG유플러스는 상반기 중 U+ 5G 서비스 3.0을 새롭게 선보여 5G 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선도하고 5G 고객 확보를 통해 성장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학·태양광·소재 합쳐 미래 10년 준비



한화그룹은 올해를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앞으로 해외 시장 선점을 토대로 핵심 사업의 글로벌 일등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류한화의 '사업별 선도 지위'와 '미래 가치'를 지속 확보하며,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사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시장 선도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경영 활동 △지속 가능한 기업 추구를 강조했다.

우선 계열사들이 상황에 맞는 디지털 변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촉발된 기술을 장착한다.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T)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출범한 한화케미칼 합병 법인인 한화솔루션은 핵심 사업인 화학과 주력사업으로 자리 잡을 태양광과 첨단소재를 통합해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은 4번째 생산 기지로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한화큐셀의 북미 태양광발전 모듈 공장에 거는 기대도 크다. 약 3만㎡ 부지에 건설한 이 모듈공장은 연간 1.7기가와트(GW) 규모의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 약 60만 가



영국의 한 주택에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한화는 올해도 방위 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앞서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또, 한화그룹은 지난해 8월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22조 원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중장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누계 투자액은 총 7조9000억 원, 신규 채용 규모는 1만5000여 명이다.

협동로봇·수소연료전지 신사업 확대



두산은 수소 연료전지, 협동로봇 등 유망한 사업을 키워 나가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두산이 설립한 두산모빌리티노베이션(DMI)의 수소 연료전지팩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전지 집합체다. 이 제품은 수소를 담은 용기를 탈부착하는 방식으로 드론의 연료원을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다. 작년 11월 양산·판매를 시작한 수소 연료전지팩은 장거리 드론 비행의 장점을 살려 임업 병해충 및 산불 모니터링, 장거리 긴급 물품 운반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시작한 협동로봇 사업에서는 이미 저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자동차 전문기업 송칭과 중국 내 협동로봇 공급을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은 작년 9월 창원 본사에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초도품 최종조립 행사를 했다. 당시 공개된 모델은 출력 270MW, 복합효율 60% 이상의 대용량을 자랑하는 고효율 가스터빈이다. 신재생 발전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100MW급 중형 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발전소 플랜트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여간다. 2018



스마트폰으로 로더 장비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두산팹켓의 '맥스 컨트롤' 기술 시연 모습. 사진제공 두산팹켓

년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SAP와 포괄적 협력 관계를 맺었는 뿐만 아니라 텔 EMC와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산팹켓은 스마트폰으로 로더 장비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맥스 컨트롤 기술을 개발·상용화했다. 이 기술은 험지 작업의 위험성을 낮추고, 혼자서도 여러 대의 장비를 다룰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준다.

두산솔루션은 전지박 등 전자소재와 의약품에 활용되는 바이오 소재 사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지난달에는 헝가리에 전지박 생산공장을 착공했으며, 내년 초 연간 5만 톤(전기차 220만 대 공급량) 생산 규모의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등 전사적 디지털 전환



LS그룹은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꼽고 있다. 모든 사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야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S그룹은 올해 1월부터 주주 내에 미래혁신단을 신설했다.

미래혁신단을 이끄는 구자는 LS엠트론 회장과 구성원들은 디지털 전환 과제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LS전선은 전선 업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재고 관리 시스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품과 자재에 통신 센서를 부착해 휴대폰으로 위치와 재고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 수천 가지에 이르는 제품의 이동 경로 추적이 가능해졌다.

LS산전은 청주 1사업장 G동을 스마트 공장으로 구축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 공장 구축 이후 저압기 라인 38개 품목의 1일 생산량은 기존 7500대 수준에서 2만 대로 확대됐다. 에너지 사용량 역시 60% 이상 절감됐다.

불량률도 글로벌 스마트 공장 수준인 6PPM(백만



LS산전 관계자가 28MW급 일본 치토세 태양광 발전소 모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산전

분율)으로 급감하면서 생산효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LS니코동제련은 생산 전 과정을 통신으로 연결해 공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ODS(Onsan Digital Smelter)'를 추진 중이다.

LS엠트론은 실시간 생산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예방 보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 국내 최초로 트랙터 연 2만 대 생산을 돌파했다.

LS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오픈 이노베이션 등 스마트 R&D 방식을 통해 디지털에 강한 LS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차 통합 마케팅·AI 스마트 팩토리 '선택과 집중'



포스코는 올해 불확실한 경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중점 사안을 정했다. 3가지 사안은 바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선진 노사문화 구현 △끊임없는 사업의 진화와 핵심사업 집중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 등이다.

우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작업표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도 지속해서 발굴, 개선키로 했다. 지능형 CCTV,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환경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친환경 생산공정 도입과 부산 물의 친환경 자원화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사업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한다. 철강사업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 등 수요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 대상으로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한다. 생산 현장에서는 생산성·품질·원가경쟁력 측면에서 높은 성과가 예상되는 중점 공장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확대한다.

그룹사 사업에서는 새롭게 정립한 중장기 성장 방향성에 따라 LNG 밸류 체인(Value Chain), 식량사업 등 사업경쟁력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한다. 트레이딩 사업은 투자 연계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건설사업은 핵심 역량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사업에서는 양·음극재 생산능력 확충 및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제품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이미 확보한 호주 리튬 광산과 아르헨티나 염호 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구현 콘셉트. 사진제공 포스코

마지막으로 포스코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의 핵심인 공생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쓴다.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고부가 물류 진출



CJ대한통운은 최근 수년간 글로벌 확장 전략을 펼쳐왔다.

고유의 첨단 물류 기법과 역량을 해외 자회사 및 현지 법인들에 전파하면서 운영 역량을 강화했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사업도 활성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체 매출에서 글로벌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36.6%, 2018년 39.6%, 지난해 42.6%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법인과 현지 인수회사의 통합을 통해 글로벌 사업 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달 초 CJ대한통운은 미국법인과 2018년 인수한 미국 DSC로지스틱스를 통합, 북미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물류 네트워크와 임직원 4200명, 축구장 400여 개 규모(280만㎡)의 물류센터를 갖춘 통합법인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를 출범했다.

회사 측은 "통합법인 출범으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영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물류 사업 영역도 기존의 식품·소비재 중심에서 콜드체인과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4일에는 말레이시아 현지법인과 2016년 인수한 CJ센추리를 통합해 통합법인 'CJ센추리'를 출범했



CJ대한통운의 미국 운송차량 행렬. 사진제공 CJ대한통운

다. 지난해 기준 양 사 합산 매출액은 2314억 원으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매출액 기준 민영 1위 종합물류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통합 법인은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40만3000㎡(약 12만1000평) 규모의 물류센터와 1500여 명의 물류 전문 인력, 1000여 대의 차량과 장비를 운영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통합 법인을 통해 물류운영 역량 강화와 생산성 극대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CJ대한통운은 본격적인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물류 초격차 역량 확보 및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3兆 투입 계열사 온라인몰 통합·O4O 전략



롯데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선도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롯데는 작년 9월 627억 원 규모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롯데-KDB 오픈노베이션 펀드'를 조성했다. 이번 투자조합은 롯데의 스타트업 투자법인인 롯데액셀러레이터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펀드 결성으로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총 1000억 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달성하게 됐고, 투자 범위가 기존 초기 투자에서 성장 단계에 진입한 스타트업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롯데는 이 펀드를 통해 유통플랫폼, O2O, 물류 부문 등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에는 인도 첸나이 지역에 있는 마드라스 인도공과대학(IITM) 리서치파크에 '롯데 인도 R&D 센터(가칭)'를 오픈했다. 이곳은 롯데그룹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사업의 글로벌 거점이 될 전망이다. IITM 리서치파크에는 74개 기업의 R&D센터 및 184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어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롯데는 3조 원을 투자해 연내 계열사별 온라인몰을 통합할 계획이며, 옴니채널을 완성시킬 롯데



롯데그룹의 7개 계열사 온라인몰 상품을 한데 모은 쇼핑앱 '롯데ON'. 사진제공 롯데그룹

만의 O4O(On-line for Off-lin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O4O 전략은 고객 구매이력과 각 계열사별 물류 및 배송시스템을 통합해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형태의 차별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월 말에는 계열사별로 운영되던 7개사(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닷컴, 롯데슈퍼, 립스,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의 온라인몰 상품을 한데 모아 롯데그룹의 새로운 쇼핑앱(App) '롯데ON'을 선보인다. 2023년까지 롯데의 e커머스 취급 규모를 20조까지 3배가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롯데는 '샬롯'이라는 AI(인공지능) 통합플랫폼도 강화할 계획이다. 샬롯은 이미 롯데백화점 엘롯데나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등의 앱에 도입돼 고객과의 채팅을 통해 상품추천, 매장정보, 간단한 C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백화점 1층에 식품관 '혁신 DNA' 실적 연결



신세계백화점의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 DNA'가 통했다. 신세계백화점은 2년 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강남점이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 매출 2조 원을 달성하는 기업을 토했다.

이 같은 눈에 띄는 성과는 어려운 유통 환경에서도 관행을 깨는 역할상 전략과 파격적인 도전으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한 전략 덕분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 처음으로 백화점 1층에 식품관을 지난달 선보였다. 영등포점은 1층과 지하 1층, 총 2개 층 1400평 규모의 식품전문관을 리뉴얼 오픈했다. 백화점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1층에 명품이나 화장품이 아닌 식품관을 꾸민 것은 국내외 어디서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또 2~6층까지 총 5개층은 생활 장르 매장으로 꾸몄다. 신세계는 영등포점 고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 장르와 식품 장르를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러한 과감한 혁신을 택했다. 점포 내 매출 시너지와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해 틀을 깨는 매장을 구성한 것이다.

리뉴얼한 식품관에는 '베이커리 구독 경제'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업계 최초로 영등포점 메나주리 매장에서 시작한 빵 월정액 모델은 한 달 5만 원에 하루에 빵 1개를 가져가는 서비스다.



올해 1월 10일 리뉴얼 오픈한 신세계 영등포점 1층 식품관. 사진제공 신세계그룹

신세계의 '혁신'은 유통업이라는 틀마저 깨버렸다. 업(業)을 뛰어넘고 프리미엄 PB(자체 상표) 제조까지 도전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늘렸다. 프리미엄 여성 의류 브랜드 '델라라나', '일라일'을 시작으로 주얼리 '아디트', 관제리 '인컷', 남성 맞춤 셔츠 '카미치에'까지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한다. 기획부터 디자인, 브랜드, 제작, 판매까지 신세계가 전 과정에 참여해 고품격 상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징호 신세계백화점 사장은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혁신을 보여준 신세계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백화점으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스마트검역 국제 공조 방안 'GEPP' 제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감염병은 발병국가 하나만의 통제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경을 초월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그중에서도 KT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구축한 '스마트검역시스템'이 대표적인 대응책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 추적에도 이 시스템이 활용된다. 통신사는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의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 이력 정보를 공익 목적으로 검역 당국에 제공한다. 또한 방문 당사자에게는 감염병 예방법을 문자(SMS)로 보내 감염병에 대한 인지를 높인다. 이러한 발상의 출발은 2015년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국내 습격이었다.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돼 귀국한 1호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공항 검역체계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는 등 수동적 검역 형태로 진행됐고, 확진자 스스로 감염병 발병 증세 등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 KT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를 방문한 국민에게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잠복기에 방문자가 증상이 발생해



KT 직원들이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GEPP, 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 홍보책자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병원에 방문했을 때 오염국가 방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해외 유심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입국 전 행적을 파악할 수 없다. KT는 '스마트 검역'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데이터의 국제 공조를 통한 감염병 확산방지 방안으로 'GEPP(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를 제안했다. KT는 201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WEF(세계경제포럼)에 참여해 GEPP를 소개했다. 그 결과 WEF에서 출범한 ERA(감염병 대비체계 강화) 데이터혁신·통신 워킹그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Schönz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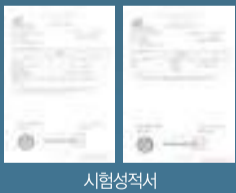
미끄러질듯 깨끗하게!

소중한 내차를 위한 최상의 광택과
표면보호, 센잔으로 코팅하세요.

센잔 유리막 코팅제는 계절변화에 매일 무방비로 방치되어
흐려진 자동차의 광택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코팅해줍니다



항사, 미세먼지 대비 특별 판매가!
1세트 59,800원
2세트 ~~119,600원~~ 99,000원



자율안전확인번호
B073H025-7006A

자율안전확인번호
B073H025-0007

힘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하는 내차관리, 특허 받은 유리막 코팅제 센잔으로 시작하세요!

최상의 광택과 차량보호까지 한번에
Schönzane

소중한 당신의 차를 위한 솔루션, 센잔은 세계적인
기업인 독일 클라이언트사의 순수 폴리실라잔 원
료를 사용한 최고급 유리막코팅제로, 365일 매일
매일 변함없는 광택을 유지해 드립니다.

- 뛰어난 발수력과 쉬팅** 뛰어난 발수코팅으로 표면에 물이 맺히지 않고 빠르게 흘러 내려 세차 및 유지관리가 쉬워집니다
 - 이물질과 스크래치 OUT** 차량 표면에 단단한 코팅막을 형성하여 도장면의 이물질과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 먼지로부터 도장면 보호**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자동차의 바디를 깨끗하게 보호해주며 세차도 간편합니다.
 - 뛰어난 내열성 코팅** 높은 열을 견딜수 있는 우수한 내열성 코팅으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변함없이 항상 새차처럼 유지해줍니다
- *왜 유리막 코팅이 필요할까요?** 주행 및 주차시, 자동차 도장면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오염물, 특히 미세먼지 속 철분가루가 표면을 천천히 부식시키고 자동차 표면의 거칠어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1세트 제품구성

- 센잔 GLASSKOTE(유리막코팅제) : 50ml
- 센코트(유리막관리제) : 100ml
- 센크린(차량흡집제거제) : 80ml
- 초극세세용 3종(소-2 대-1) • 작업용보드

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 온라인주문 www.arambi.kr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600-2020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미술계 신진작가들이 언제나 찾는 곳 되고 싶어”

장승현 안국문화재단 사무국장 겸 책임큐레이터

‘AG신진작가대상’ 시상 그치지 않고 컨설팅·네트워크 제공 안국약품 대림동 본사 ‘갤러리AG’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신진작가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친정 같은 곳이 되고 싶습니다.”

장승현 안국문화재단 사무국장 겸 책임 큐레이터에게 2020년은 중요한 한 해다. 신세계갤러리 첫 공채 큐레이터를 시작으로 400여 회의 전시를 기획한 그는 2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안국문화재단에서 신진 현대미술 작가들의 토양 마련에 나섰다.

안국약품의 사회공헌 사업 중추인 안국문화재단은 업계에선 드물게 현대미술을 지원한다. 국내 미술계는 열악한 현실 속에 지원 사업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안국문화재단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 사업은 지난해 첫 삽을 뜬 ‘AG신진작가대상’ 공모전이다. 전도유망한 작가를 발굴해 상금과 전시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작품을 위한 컨설팅과 인적 네트워크까지 제공한다. 여섯 명 모집에 470여 명의 작가가 몰려들 만큼 반향이 컸

다. 장 사무국장은 “작가가 평론가와 1대 1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직접 만들어 준다”면서 “단순히 시상만 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여러 공모전과 확실한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진작가를 지원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작가를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다. 국내 미술계는 순수한 창작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면서 세계화란 핑계로 잠식될 위험에 처했다. 장 사무국장은 “SNS에 기록을 남기기 위한 관람 문화가 생기면서 신진작가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은 굉장히 취약해졌다”며 “우리 미술계가 발전하려면 작가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국문화재단은 올해 ‘안국문화재단 미술상’을 신설한다. 작품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상하는 기존 방식 대신 우리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롭게 접근하는 시상식이다. 수상작은 국내에서 열리는 3개의 비엔날레에서 본 전시에 오른 작품 중에 나온다. 비엔날레 무대에 오



19일 서울 영등포구 안국약품 갤러리AG에서 이투데이와 만난 장승현 안국문화재단 사무국장은 “미술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진작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르기까지 여러 차례 선별 과정을 거친 작품을 다시 한번 거르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작가들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 사무국장은 “안국문화재단 미술상은 익숙한 우리나라 작가들을 재평가해 비엔날레의 기능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통로로 기능할 것”이라며 “국내 작가들이 해외로 나갈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갤러리AG는 안국약품 본사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대

림동에 있다. 이곳은 신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 소중한 전시장이자 지역 주민들이 언제나 편안히 들어올 수 있는 문화생활 공간이다. 지금은 ‘꿈과 역설’이란 주제로 다음달 27일까지 신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하나하나 장 사무국장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이다. 그는 “안국문화재단과 갤러리AG가 신진작가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우한 이송자들과 함께 생활하겠다” 격리시설 입소한 우크라이나 보건장관 해당지역 주민들은 격렬 반대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이송된 우크라이나인의 격리 수용에 반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보건장관이 자국민 등이 격리된 시설에 자진해서 들어갔다. 이송자들에게 연대를 표시하기 위해 2주 격리기간에 수용시설에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는 것이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조르나 스칼레츠카(38·사진) 우크라이나 보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마침내 2주를 보낼 곳에 들어왔다. 일반 방에 입실시켜 달라고 했지만 업무를 보고 스카이프와 전화로 계속 원격 회의를 해야 해서 별도의 업무 공간을 배정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다.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검진하고 있지만 호흡기 질환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일 민간 여객기를 이용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으로부터 자국민 45명과 외국인 27명 등 72명을 자국으로 이송시켰다. 이들은 이후 중부 푼타바주에 있는 국가근위대(내무군) 의료센터에 격리됐다.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19 유입·확산을 우려해 전날까지 이들 동안 격리 시설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 수백 명과 충돌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이송자들이 1986년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체르노빌에 수용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 7)’ 발매 직후인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서 진행된 NBC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한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BTS 새 앨범, 91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 역대 최고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 타이틀곡 ‘온’은 83개국서 1위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2일 전날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 7)’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 세계 91개 국가와 지역 아이튠즈의 ‘톱 앨범’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빅히트는 “이는 BTS 앨범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싱

가포르 일본 등 폭 넓은 지역에서 팬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새 앨범 타이틀곡 ‘온(ON)’도 83개 국가와 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는 앨범 수록곡이 1~10위에 폭 늘어서는 등 BTS의 폭발적인 인기를 반영했다. 한국에서도 타이틀곡 온이 멜론과 지니뮤직 벅스뮤직 플로 소리바다 등 5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바로 올랐으며 나머지 앨범 수록곡들도 최상위권에 포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한국지식재산학회장 김원오 교수

사단법인 한국지식재산학회가 최근 2020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지식재산학회는 지식재산 및 관련 제도에 관한 국내외 이론과 실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66년도에 설립했다. 지식재산 관련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진 학회다. 최영희 기자 che@

LG전자, 호주 산불피해 지원...동물구호단체에 4억 전달

‘트윈스’ 선수들도 팬사인회 모금

LG전자가 호주 남동부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LG전자는 자사 호주법인(법인장 임상무·사진 맨 왼쪽)이 22일(현지시간) 호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비영리단체인 와이어스에 기부금 50만 호주달러(약 4억 원)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목숨을 잃고 서식지의 30% 이상이 없어지는 등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호주 현지에서 전지훈련 중인 LG 트윈스 선수단도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해 팬사인회를 진행하며 모금 활동을 했다. LG전자 호주법인 임직원들도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있다. LG전자 호주법인은 LG 트윈스 선수단의 모금액과 임직원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해 내달 초 와이어스에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

LG전자 임상무 호주법인장은 “6개월에



결친 산불로 인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호주와 호주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싶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게시판

LG전자, 고진영 선수 3년간 후원

LG전자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인 고진영 선수를 공식 후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고 선수는 계약 기간 LG전자의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 로고가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국내외 경기에 나선다. 또 LG 시그니처의 브랜드 홍보대사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MBC 사장에 박성제 보도국장 내정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는 22일 마포구 상암동 방문진 사무실에서 사장 후보 3명을 공개면접하고 투표한 결과, 재직 이사 과반의 지지로 박성제 MBC 보도국장을 신임 사장 내정자로 선임했다. 박성제 사장 내정자는 24일 열리는 MBC 주주총회에서 사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중소재단 ‘인생 한끼’ 신청자 모집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올해 2분기 ‘따뜻한 인생 한끼’ 프로젝트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따뜻한 인생 한끼’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신청자를 모집해 추억에 남은 식사 기회를 주는 프로젝트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사연과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사

-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승진 △농업기반과장 강경만 △농기자재정책팀장 김호균 ◇주재관 전출입 △외교부 박경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조장웅
-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 △은행과장 박민우
- ◆농촌진흥청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홍수명

부음

- ▲양옥선 씨 별세, 김문섭(전 안성시 주

택과장)·의섭(삼성SDS 수석)·문선 씨 모친상, 박유한(KBS 보도기획부장) 씨 장모상 = 22일, 인천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16호실, 발인 24일 낮 12시 30분, 032-432-3350

▲이범덕 씨 별세, 이정우(세계일보 산업부 기자)·하영(수원시립교향악단 단원)·주영(회사원) 씨 부친상, 배주호(GEA Korea 팀장) 씨 시부상 = 22일, 대구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조문 사절), 발인 24일 낮 12시 30분, 053-766-4444

▲이종택 씨 별세, 김복덕 씨 남편상, 이재권(CN Worldwide 대표이사)·금호·소

연 씨 부친상, 정세은 씨 시부상, 백기청·김장욱(신세계이앤씨 대표이사) 씨 장인상 = 23일,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권오석(전 울산 학성고 교사) 씨 별세, 권혁철(부산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혁범(TV조선 심의실장)·영란(울산대 곡고 교사)·혜경(울산 대현고 교사)·선아 씨 부친상, 최장식(변호사)·이수식(울산과 학대 교수)·백영춘(현대백화점 부장) 씨 장인상, 윤애선(부산대 불문과 교수)·이혜경(마취통증 전문의) 씨 시부상 = 23일, 울산 세민에스요양병원 장례식장 VIP 1호

실, 발인 25일 오전 6시, 052-920-1244

▲전병우 씨 별세, 전흥배(MBC 촬영감독) 씨 부친상 = 23일,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02-860-3500

▲이충한 씨 별세, 이주영·주영(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씨 부친상 = 23일, 경기 군포 지샘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31-389-3774

▲김계진 씨 별세, 유미자 씨 남편상, 김정현·성원(KBS 공채 24기 개그맨) 씨 부친상 = 15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6일 오전 8시, 02-3779-1924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코로나노믹스 같은 문제는 결국 반도체, AI(인공지능), EV(전기차) 등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준명 김앤장 고문의 전언).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노믹스의 비용과 기회

(Corononomic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코로나노믹스)은 시간이 흐를수록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외신 보도에 주로 등장하는 코로나노믹스의 상징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최근 시산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회사는 2020년 278억 달러(약 31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이 중국 항공회사의 손실이다. 이 협회는 세계 전체로 보면 2008년 리먼쇼크 이래 최대의 수요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IATA는 당초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객 수요는 전년 대비 4.8% 증가를 예상했으나 신종 바이러스 영향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편을 결항하는 항공회사가 늘어나 전년 대비 8.2%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 지역을 제외한 세계 항공회사 전체의 손실은 29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이하드 종합연구소는 매년 2월 초 스페

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쇼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취소된 것을 비롯, 세계 전시회의 피해를 추산했다. 세계 전시회 내장객 수는 연간 3억 명, 경제적 효과는 33조 엔(330조 원)에 이르는데 이번 사태로 절반 이상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감소가 세계 공급 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0년 1~3월 석유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하루 약 44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요가 분기 베이스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10년 만의 처음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도 2020년의 세계 석유 수요를 하루 평균 1억170만 배럴로, 1월 시점의 전망에서 약 37만 배럴을 하방 수정했다. LNG의 공급과잉 현상도 강해지고 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연산 7000만 배

럴 분의 공장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량의 20%를 넘는 생산능력 확대다.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의 수요 확대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국영석유회사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미 계약한 LNG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상당 기간 중국의 수요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공급과잉에 대한 경제심리로 아시아의 현물거래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하락은 일견 구입 측인 소비국에는 호재다. 그렇지만 항공노선의 감편과 해상무역의 저조 등과 같은 경제활동의 위축이 원인이라면 오히려 세계경제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된다. 석유와 LNG 수출에 재정을 의존하는 자원국들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특히 중동에서는 지금 부족으로 탈석유 의존의 개혁이 지체되면서 일단의 지역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에너지 가격 하락이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는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코로나노믹스 같은 문제는 결국 반도체, AI(인공지능), EV(전기차) 등에 의해 극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준명 김앤장 고문의 전언).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조립업체는 살지만 부품회사는 위기다. CASE(양방향 연결성, 자율주행, 차량공유와 서비스, 완전 전동화)의 사회 도입이 한층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노믹스와 산업구조 전환을 연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에너지·환경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첨단기술 사회의 실현도 지금부터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당장의 역병에 대처하기 위해선 캠프주사밖에 도리가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느 한쪽에서는 국가의 내구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과제가 매우 무겁다.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벤처라는 형태의 기업활동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나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존재하는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 역사를 보면 벤처는 인류가 존재했던 시간만큼이나 길게 인간 사회에서 존재했던 활동이라 하겠다. 이런 활동이 근대 경제구조로 들어와 벤처를 진행하는 구성원의 자본뿐 아니라 타인의 자본으로 시작되거나 커져 가는 시스템이 구축되며, 사회적 분배와 부채의 법적 책임이 구체화되고 정체되었던 역사도 100년이 넘는다. 이런 역사에서 벤처 투자, 특히 어디로 자본이 흘러가고 눈에 띄는 자본 활동들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는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왔던 지표이기도 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2020년의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앞을 바라보는 의의로 현재 벤처 활동의 전반적 트렌드를 짚어보고자 한다.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나

벤처 투자가 달라지고 있다

라가 글로벌 벤처 활동에 리더십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미국에서 나오는데 이터를 통해 분석해보겠다.

먼저 크게 보이는 현상은 전체 벤처 투자 중 엔젤 투자의 활동이 점차 줄고, 소위 몸집이 이미 큰 벤처들이 더 크게 사업을 벌일 때 일어나는 ‘메가딜(late stage mega deal)’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에는 약 5000만 달러(약 6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70% 정도의 메가딜이 이보다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2018년 이후 눈에 띄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초기 벤처 투자에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길었던 경제 호황의 끝이 가까이 있다는 위험 인지가 높아지며, 대박 가능성보다 안전하고 단기간의 지불 가능성에 베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눈에 띄는 것이 대기업 벤처 투자(corporate venture capital)이다. 즉, 이미 대기업으로 자리 잡은 벤처 기업이나 기존 대기업들이 벤처 투자자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업들의 자본이 반

드시 벤처를 인수하려는 의도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벤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하나의 기업 수익모델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기업의 수익을 올리는 전통적 모델을 추구하는 동시에, 벤처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 2019년 가장 눈에 띄는 벤처 자본 회수(venture fund exit) 방법은 대기업이 투자했던 벤처들의 IPO였다.

또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은 소프트웨어 벤처에 투자하는 자본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한동안 거의 60%의 벤처 투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현재까지 그 투자 사이즈가 전체의 3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벤처는 여전히 가장 많은 벤처 투자를 받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트렌드는 벤처 펀드가 더욱 다양한 기업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통한 급진적으로 다른 기업 모델(disruptive innovation)

보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기존의 기업 모델과 섞여 소비자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용 모델에 효율성과 혁신을 높이는 벤처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과 함께 여성들의 벤처 활동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 여성이 이끄는 벤처에 들어간 자본이 약 40배 늘었다. 2019년 각각 1조 원 규모의 벤처 IPO를 이끌었던 글로시에(Glossier),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는 이런 현상의 예다. 이 둘은 여성이 이끌었던 벤처 모델이었다. 아직까지는 여성이 이끄는 벤처 모델이 패션이나 화장품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현재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물론 여성이 이끄는 벤처가 반드시 투자 유치에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성만으로 구성된 벤처 창업팀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줄고 있는 것은 뚜렷한 현상이다. 특히 이런 현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는 벤처보다 뉴욕에서 진행되는 벤처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버트 풀턴 명언 “미국이 운하로 인해 통합된다면 미합중국을 독립된, 그리고 분리된 정부들로 갈라놓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미국의 기술자. 외문학자(汽船) 클러먼트호를 진수시켜 허드슨강의 뉴욕-올버니 간 세계 최초의 기선에 의한 정기항로를 개설한 선구자. 그가 동부와 서부를 잇는 이리(Erie) 운하 건설을 추진하며 한 말. 그는 오늘 세상을 떠났다. 1765~1815.

☆ 고사성어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뜻. 전한(前漢) 원제(元帝)의 궁녀 왕소군(王昭君)을 두고 지은 시구다. 절세미인인 그녀는 흉노와의 화친정책에 의해 흉노 왕에게 시집가게 된 불운한 여자였다. 동방규(東方朔)의 소군원(昭君怨) 시의 구절.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 시사상식/ 정보전염병(infodemic)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전염병과 유사하다는 데서 생겨난 용어.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ndemic)의 합성어. 전문적이고 공식적인 매체를 비롯해 전화나 메시지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확산되며, 전파 속도가 빨라 잘못을 바로 잡기가 어려워 시장의 혼란을 키워 문제가 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 노들강변 버드나무가 휘휘 늘어진 강변을 흔히 연상하지만, 서울의 ‘노랑진(露梁津)’ 나무터를 말하는 고유명사.

☆ 유머 / 할 말 하는 피고 한 피고를 무려 일곱 번이나 재판하게 된 판사가 “쫄쫄, 자네를 또 만났군. 피고는 날 보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지방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오늘까지 피고를 만난 게 벌써 일곱 번째라고.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피고의 답변. “판사님도 참 이상한 분이네요. 승진 못한 게 왜 제 탓입니까?”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조성준 IT중소기업부/tiatio@

원점으로 돌아온 모빌리티·택시 갈등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과정에서 카풀 서비스는 백지화돼 진출을 준비하던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스타트업계의 카풀 서비스는 무산됐지만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인 승차 공유 서비스는 지켜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1심 무죄 판결이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말 그랬던 것처럼 택시 업계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 택시 전 차량의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서비스를 배척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정부의 조정도 아쉽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 왔다.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한번 어긋나버린 단추는 끝까지 어긋난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어떨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쳐봤자 돌아오는 것은 또다시 원점이다.

법원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서비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시달렸던 타다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택시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반발은 사실 예견된 것이었다. 무죄 판결에 택시업계는 기다렸다는 듯 25일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타다 불법 영업 규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갈등은 2018년 말부터 이어져 왔다. 택시 업계는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 앞까지 꾸준히 카풀과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반대

바이러스에 취약한 학교 안 아이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한국을 멈춰 세웠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방역망은 이미 뚫렸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발병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현실화했다. 팬데믹(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현재 확진환자는 총 556명, 의심환자는 6039명이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4명이다. 이번 사태는 며칠 동안 확진자가 늘지 않는 등 진정 기미를 보이다 갑자기 한꺼번에 확진 판정이 쏟아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하룻밤 사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강한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교회, 강당, 학교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공항, 항만 검역에 집중하고 중국 입국자를 추적, 격리하는 지금까지의 방역 체계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무엇보다 '과잉대응'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대응 자세를 보면 마뜩찮다. 대학가는 이번 주부터 대거 입국할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대학들은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은 14일간 등교를 중지시킨다. 코로나19 잠복기로 알려진 2주 동안은 외부와의 접촉을 막겠다는 뜻인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

데스크칼럼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은 기숙사, 수련원을 활용해 중국인 유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지만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중국인 유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기숙사 격리를 강제할 권한도 없다. 이럴 경우 거주지에서 자율격리밖에 방법이 없는데, 대학이 일일이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다.

대학정보공시센터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인 17개 대학 중 연세대·이화여대를 제외한 15곳(88.2%)이 기숙사방 수가 중국인 유학생 수보다 적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인 유학생 상위 10개교는 경희대(3839명)·성균관대(3330명)·중앙대(3199명)·한양대(2949명)·고려대(2833명)·한국외대(1810명)·연세대(1772명)·홍익대(1694명)·상명대(1375명)·숭실대(1349명) 등이다. 이들 대학의 기숙사 보유 현황에 단순히 숫자를 대입해 보면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별로 최소 150명에서 최대 1900명이 더 많다. 이마저도 중국인 유학생 모두가 기숙사 격리를 희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다. 중국인 유학생이 발등의 불이 됐지만 교육부는 대응 가이드라인만 내놓고는 대학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다. 그렇다고 대학들이 만족할 만한 예산 지원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단일한 대응이 불편하다. 어린이들은 위생 관념이 성인보다 부족하다. 영유아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생까지는 떨어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집어 먹는다. 아무리 부모가 마스크를 씌우고 손소독제를 챙겨 줘도 소용이 없다. 부모의 당부는 잔소리일 뿐이다. 친구들과 뛰어노는데 갑갑하고, 방해된다면 마스크 따위는 주머니행이다.

만약 감염이라도 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어야 할 아이들은 심리적으 더욱 견디기 힘든 상태가 된다. 18일 확진을 받은 수원 초등학교생(32번째)의 엄마(20번째)를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함께 치료를 받게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다행히 어린이가 추가 확진자는 현재까지 2명에 그쳤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학 이후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교실은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한다는 점에서 종교시설과 비슷하다. 한꺼번에 많은 아이가 감염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1주일 연기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재택근무 등 기업들의 배려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 바란다. js62@

사설

코로나19 '심각' 발령, 최고 수준 총력 대응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망이 전국 모든 곳에서 뚫렸다. 검사를 수 없이 퍼지면서 국민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해지자 23일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환자가 169명 발생해 국내 확진자는 모두 602명으로,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인 22일에는 22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확진자의 급증으로 대유행이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23일 신규 확진자 169명의 대부분이 신천지대구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역사회의 2차 확산을 막을 수 없는 단계다. 그동안 확진자 발견과 접촉자 격리 등 봉쇄에 중점을 두어온 1차 방역은 완전히 구멍 난 상태로 실패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기존 방역대책으로는 전염병 차단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제라도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의료계는 22일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해 방역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감염학회와 결핵및호흡기학회 등 범(汎)학계 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의료계는 사태 발생 초기에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한 중국 전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위기경보 단계 격상도 정부는 제한적 상황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뒤늦게 의료계 권고를 수용했다.

이미 전국으로 퍼져가는 전염병에 국민들은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이다.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상황은 전염병이 제한적으로 번진 '경계' 단계를 넘어선, 지역사회 및 전국으로의 확산을 뜻한다. 이미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심각' 단계에서는 대응전략이 환자들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의료계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이 결국 환자들의 지역사회 노출을 막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면서 앞으로 1주일 이상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 있음을 의료계는 경고하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의 격상과 함께,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을 전면 개편해 비상 의료전달체계 확립, 피해 최소화를 위한 2차 예방조치 등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심각한 재앙으로 번지기 전에 가능한 수준의 모든 강력 대응조치를 동원해야 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수적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코로나19 희생양 된 유통대기업

복되고 있다. 외출을 자제하게 되니 필요한 물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외식 대신 배달 음식을 즐긴다. 유명 맛집이라 예약을 해야만 하는 식당도 예약이 뚝 끊겼다. 손님들의 수다 대신 매장을 채우는 것은 주인의 한숨뿐이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식당이나 극장, 대형마트는 정부가 매장 폐쇄를 권고하지 않아도 손실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다. 방역 후 다시 문을 열지만 이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인지,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매장 운영이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현실화하자 각종 대책과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수출기업을 위한 무역금융에 3조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되서리를 맞은 공연계에도 수십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역시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업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 해결에도 나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유통업체들은 정작 소외된 모양새다. 이마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군산점, 부천점에 이어 성수점, 킨텍스점까지 임

시휴업에 들어갔다. CJ CGV도 확진자가 방문한 성신여대점과 부천점을 사흘간 폐관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등도 서울과 제주의 매장 문을 닫은 바 있다.

유통업계 중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단연 대형마트다. 이들은 외출을 꺼리는 추세로 내점고객이 급감하자 급기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소비자들의 구매 패러다임이 온라인과 당일 배송으로 전환되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친 업계가 꺼내든 최후의 보루다. 그나마 대형마트는 이런 목소리라도 내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군말없이 손실을 떠안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굽신는다.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보상 대책이 발표되자 유통 대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남의 이야기"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그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 보상 대신 수십억 적자를 떠안는 것이 대기업의 미덕으로 여겨지는만큼 오히려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적자 선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한다. 이들의 적자 선행으로 매장이 문을 닫고 직원이 구조조정을 당하는 도미노 악재가 우려되는 것은 기우일까. yhh1209@

가장 우리말 한 토막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선생님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쓰는 단어 중 하나인 자문(諮問).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자문을 '말로 깨우쳐 주어서 돕는다'는 의미의 조언 또는 도움말 정도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자문의 정확한 의미를 살피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 구성을 살펴보면 '물을 자(諮)', '물을 문(問)'이므로 '물논'을 뜻한다.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하려고 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질문'이 곧 자문이다. 그런데 '자문을 구한다'고 하면 '(내가 상대에게) 묻는 것을 (상대가 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뜻이 되므로 어색한 표현이 된다. 자문을 구하거나, 받거나, 얻을 수 없다.

또, 자문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물을 때 쓰이던 말이다.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조전(趙典)이라는

자문과 조언

태상(太常, 오늘날 대통령비서관에 해당)이 있었는데, 학식이 매우 뛰어나고 직언을 잘해 환제가 쟁점이 있을 때마다 조전에게 자문했다는 데서 유래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윗사람이 아랫사람인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원뜻이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자문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따라서 헛머리에서 언급한 예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다" "선생님에게 도움말을 청했다" 등과 같이 써야 한다.

'자문'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는 '자문했다'를, 전문가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줬을 때는 '자문에 응했다'고 표현하면 된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도 접하게 된다. 그럴 때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게. 분명 진심으로 자문에 응해 주고, 기꺼이 조언해 주는 고마운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1999년 국민은행 업계 최초 인터넷뱅킹서비스 실시



■ 국민은행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국내은행중 처음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8일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송금, 조회 등 은행거래를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국민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은행간 거래와 조회업무만 시작한 후 점차 무역결제,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등 국제거래업무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서비스 요금은 국제전화요금인 아닌 일반 시내요금에 적용된다.

2003년 세계 최초 모바일뱅킹서비스 Bank ON 실시

휴대폰을 이용해 계좌조회와 이체, 출금, 수표조회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서비스가 본격 등장했다. 국내 최초로 스마트 칩을 이용한 첨단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뱅크 온(Bank On)'을 선보였다.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서비스되는 뱅크 온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담은 금융 전용 칩을 전용 휴대폰에 내장 계좌조회와 이체, 현금출금, 수표조회 등의 기본서비스는 물론 교통카드 기능까지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런 뱅크 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입력단계는 3~4회로, 소요시간은 1분내로 대폭 단축되며 통신료도 기존의 10~15% 수준인 건당 10~30원에 불과하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향후에는 앞으로 한두달 내내 신용카드 지불 기능을 추가하고 로또복권 구매와 당첨확인 서비스, 공과금 납입, 주택 청약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영역을 대폭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년 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KB손해보험, 손보업계 최초 '보이는 ARS' 서비스 실시

KB손해보험은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 고객과 상담사 간의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ARS)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이는 ARS' 서비스를 실시한다. '보이는 ARS' 서비스는 기존 ARS와 달리 상담사 화면에 실시간으로 상담사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은 상담사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고객은 상담사 화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2016년 업계 최초 올인원카드 KB국민 알파원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카드업계 최초로 여러 장의 KB국민카드를 한 장의 카드에 담아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KB국민 알파원카드'를 2일 출시했다.

이 카드의 상품명인 '알파원'은 판테크 기술이 집약된 최고와 최초의 카드라는 뜻의 알파와 모든 카드와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에 담은 올인원(All in One) 카드라는 뜻의 (One),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카드 상품마다 각기 다른 혜택을 제공하다보니 필요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카드를 모두 소지해야 했으나 이 카드를 이용하면 단 한장의 카드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카드는 별도 발급비가 없어 사용 편의성은 물론이다. 이 카드 한 장으로 금받은 여러 장의 카드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해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국내 최초 금융통신융합 이동통신 서비스 Liiv M 출시



KB국민은행(하인 은행)이 16일 중원방송이 주관하는 '2019년 M-Net 모바일 콘서트(Mobile Only Concert)'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인 '리브(Liiv)'를 활용하고, '리브모바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하인 은행)이 16일 중원방송이 주관하는 '2019년 M-Net 모바일 콘서트(Mobile Only Concert)'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인 '리브(Liiv)'를 활용하고, '리브모바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 세상의 새로운 페이지 KB금융그룹이 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